

2026 싱가포르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9
가. 정부 현황	09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0
3. 주요 이슈 Pick	13
가. 싱가포르의 ASEAN 탄소시장 협력 및 녹색금융 허브 도약	13
나. 트럼프 관세에 대한 싱가포르 비상대응 : SERT 출범과 기업지원책	14
다. 싱가포르의 녹색경제 전략 : 2050 Net-Zero 달성	16
라. 고령화 사회 대응 : 인구문제 해결, 노인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18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1
가. 시장 특징	21
나. 무역	23
다. 산업	34
라. 투자	37
2. 유망 산업	44
가. 건설업	44
나. 바이오메디컬	48
다. 자동차산업	55
3. 협력 기회	59
가. 통상·G2G	59
나. 프로젝트	60
다. 공급망(자원개발)	61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64
2. 진출전략	66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80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85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87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88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9 |
| 3. 주요 이슈 Pick | 13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싱가포르 경제 전망

- 2025년 싱가포르 경제 성장을, 2024년 대비 둔화된 1.5~1.9%대로 전망
 - 2025년초 2.6%의 경제성장이 전망되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지정학적 긴장을 주된 이유로 전망치 1.7%로 하향 조정(2025년 3월)
 -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CPI)은 0.9%로 전망되어 2024년 대비 안정세를 보임. 원자재 가격 안정 및 글로벌 수요 둔화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 예상
 - 2025년 균원 인플레이션은 0.8%로 전망되어, 2024년 예상치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 주거·교통을 제외한 주요 서비스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26년 CPI와 균원 인플레이션의 중앙값 전망치는 각각 약 1.5%로 집계되어, 2025년의 일시적 안정세 이후 점진적 물가 상승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함

□ 호재 요인

- 주요 교역국(미국)의 경제 성장을 상승 추세
 -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미국 경제성장을*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싱가포르의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양호할 경우 시장 낙관론 확산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치(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5년 1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24년 3분기에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전년 대비 2.7%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미국 경제성장을 전망이 2024년 10월 대비 상향 조정됨.
- 글로벌 기술 사이클 회복
 - '24년에 불안정했던 반도체 산업이 2025년에는 보다 폭넓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반도체 및 전자 산업 중심의 기술 사이클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제조업 및 수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 글로벌 기술 사이클 상승 속에 싱가포르의 전자, 정밀·운송 공학 분야가 산업 생산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수혜지

- 경제개발위원회(EDB)에 따르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중심 공급망에 대한 위험 회피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생산·R&D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

□ 부진 요인

- 지정학적 긴장 고조

- 미·중 무역 경쟁의 재점화로 인해 글로벌 교역 환경이 불확실해지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 관세 부과 조치 및 중국의 대응 등의 무역 긴장 재확산은 수출·재수출 중심의 싱가포르 제조 및 상업 부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주요 교역국(중국)의 경기 둔화

- 중국의 수출 성장률은 2025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4.4%로,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음
- 중국의 소비 및 수요 위축이 가시화되면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제조업과 무역 관련 서비스가 외부 수요 약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 글로벌 금융 여건 긴축

- 미국 등 주요국이 2025년 하반기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과 긴축적 금융 환경으로 인해 글로벌 자금 조달 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음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통화정책 완화를 위해 이미 싱가포르 달러 명목실효환율(S\$NEER) 정책 밴드의 기울기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금융 여건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며 하방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판단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5.70	5.69	5.45	5.64	5.70	6.04	-	-
명목 GDP	십억 달러	376.2	349.2	436.6	509.0	505.4	547.4	564.8F	-
1인당 명목 GDP	달러	65,952	61,410	80,056	90,299	85,412	90,674	92,932F	-
실질 성장률	%	1.3	-3.9	8.9	3.6	1.8	4.4	2.0F	-
실업률	%	2.2	3	2.8	2.1	1.9	2	2.0*	-
소비자물가 상승률	%	0.6	-0.2	2.3	6.1	4.8	2.4	0.6*	-
재정수지(GDP 대비)	%	15.4	17.5	19.8	18.4	17.7	17.5	-	-
총 수출	백만 달러	390,652	368,096	457,564	514,945	475,315	504,921	268,859*	-
(對韓 수출)	백만 달러	15,213	16,706	19,706	20,825	20,653	21,272	11,371*	-
총 수입	백만 달러	359,180	329,064	406,774	551,385	475,315	457,904	235,975*	-
(對韓 수입)	백만 달러	13,728	15,573	22,173	30,633	25,665	28,730	15,245*	-
무역수지	백만 달러	31,472	39,032	50,790	-36,440	52,760	47,017	32,684*	-
경상수지	백만 달러	78,943	84,313	116,124	129,278	120,048	128,299	34,797*	-
해외직접투자	현지국/US\$	1.36	1.38	1.34	1.38	1.34	1.34	1.31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093	1,185	1,332	1,471	1,523	-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913	2,121	2,464	2,608	2,843	-	-	-

주: *는 추정치, 2025년 전망치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KITA),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MTI, OFX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025년 3분기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며 예상치를 상회
 - 2025년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 1분기(4.1%)를 넘어선 수치로 성장세를 이어감
 - 2분기 GDP 성장의 주축은 도매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운수·저장업. 특히 도매업과 운수·저장업은 미국의 관세 조치 시행에 앞서 역내 사전 반입(front-loading) 활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내수 중심 업종 전반의 부진으로 식음료 서비스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0.5% 위축되어 1분기에 이어 둔화세가 이어짐
- (소비) 내수 소비 회복세와 환율 효과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
 - 2025년 6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하여 5월의 1.3%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자동차 판매가 이 성장세를 주도함. 다만 내수 중심 식음료 서비스업은 여전히 위축되는 등 소비 회복이 업종별로 불균형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임

- 민간소비지출은 2024년 대비 2025년에 약 7.4% 증가하며,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남
 - 한편, 싱가포르 달러 강세로 인해 해외에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구매력을 활발히 활용하려는 소비자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민간투자) 투자유입 흐름 지속 : 제조업이 성장 견인, 서비스·화학은 축소세
 - 2024년 싱가포르 민간 고정자산 투자(Fixed Assets Investments, FAI) 규모는 총 134억 5,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2023년(126억 6,000만 싱가포르 달러) 대비 증가하여 견조한 투자유입의 흐름을 보임
 - 제조업 부문 투자가 110억 8,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2023년(87억 싱가포르 달러)보다 크게 확대되며 전체 투자를 주도
 - * 전자산업 투자가 76억 6,500만 싱가포르 달러로, 2023년(30억 6,000만 싱가포르 달러) 대비 2배 이상 급증. 이는 반도체 및 첨단 부품 생산 능력 확충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됨
 - * 의약품 투자도 22억 1,500만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9억 달러) 대비 확대되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투자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줌
 - 반면, 화학 산업 투자는 3억 6,600만 싱가포르 달러로 2023년(45억 싱가포르 달러) 대비 크게 감소. 이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비용 부담 요인에 따른 조정으로 해석됨
 - 서비스 산업군 투자는 23억 7,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2023년(39억 6,000만 싱가포르 달러) 대비 축소됨. IT·디지털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일부에서 투자가 유지되었으나, 물류·부동산 관련 투자는 둔화세를 보임
- (산업생산) 신규 주문 확대에 따른 제조업 경기 확장세 가속화
 - 2025년 7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1로 집계되어 6월(51.0)보다 상승하며 최근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함. 장기 평균을 상회하며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강화됨
 - 또한 기업 활동은 신규 주문 증가세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8개월 중 가장 빠른 확장세를 나타냄
 - 신규 수주 증가는 과거 지속된 사업 개발 노력의 결실, 내수 및 역내 수요 기반의 강화, 일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회복 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대외교역) 상반기 무역 흑자 유지, 전자·비전자 수출 모두 호조세이나 하반기 불확실성 존재
 - 2025년 1~6월 수출액은 약 2,686억 7,000만 미국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하여 글로벌 수요 회복세를 반영함
 - 같은 기간 수입액은 약 2,360억 미국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27억 미국 달러 흑자를 기록, 견조한 무역 흑자 기조가 이어짐
 - 주요 수출국은 홍콩,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역내 국가들로, IT·전자제품 수요 회복이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
 - 다만, 싱가포르 무역산업부(MTI)는 미국의 상호 관세 재개 및 프론트로딩(선제 수출) 효과 약화로 인해 하반기에는 교역 모멘텀이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

- (투자유입) 2025년 2분기 FDI 순유입 소폭 감소, 금융허브 위상 유지하며 첨단 제조·서비스 중심 투자 지속
 - 2025년 2분기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은 약 551억 싱가포르 달러로, 2025년 1분기 (약 558억 싱가포르 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24년 연간 기준 FDI 유입액은 약 1,920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투자유입 기조가 이어짐
 -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금융·보험업 부문에 꾸준한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글로벌 자산 운용사·핀테크 기업들의 허브 역할이 강화됨
 - 첨단 제조업(특히 반도체·전자, 바이오·제약)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 이는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China+1 전략) 수혜를 받는 흐름
 - 2025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기조와 미·중 무역 긴장 재개 여부가 투자 심리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아시아 시장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전략이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허브 기능과 첨단 제조업 클러스터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FDI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투자 진출) 금융·보험업 중심 해외투자 구조, 투자 확대 흐름 유지
 - 2023년 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는 총 1조 5,233억 싱가포르 달러로 집계됨
 - * 투자 대상국별 : 중국(2,230억 싱가포르 달러), 인도(1,099억 싱가포르 달러), 영국(1,051억 싱가포르 달러)이 주요 투자처로 나타남
 - * 산업별 : 금융·보험업(7,506억 싱가포르 달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제조업(2,697억 싱가포르 달러), 도·소매업(1,114억 싱가포르 달러)이 뒤를 이음
 - 2024, 2025년 공식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시장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7년 연속 인도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며, 2024~2025년 회계연도 기준 약 150억 달러 규모를 인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금융, 인프라, 디지털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The Times of India, 2025년 1월)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싱가포르 정치구조 및 주요 역할

- 의원내각제 정치체제
 -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치 및 행정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
 - 여당으로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 야당으로는 노동자당 등이 있음
 - * 싱가포르는 공화국이며,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1965년 이후 제1야당인 노동당과 함께 인민행동당이 지배적인 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음. 독립 이후 선거로 인해 의회가 공전된 적이 없기에 소수 정당은 흔하지 않음. 현재 싱가포르는 실질적인 일당제로 운영
- 싱가포르 제9대 대통령, '타르만 샰무가라트남'
 - 2023년 9월 치러진 대선에서 인도계 정치인 타르만 샰무가라트남이 70.4%의 높은 득표율로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됨.
 - 싱가포르 중앙은행(MAS) 회장, 재무장관, 부총리 겸 수석장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첫 비중국인 직접선거 당선자라는 점에서 현지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음
 -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의례적 역할을 주로 수행하면서도, 최근에는 해외 순방과 정상 외교를 통해 싱가포르의 국제 위상 제고와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내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대외적 이미지 구축과 외교적 네트워크 확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싱가포르 총리, '로렌스 웨이', 첫 총선(2025년)에서 확고한 정치적 신임 확보 : PAP 안정적 통치 기반 재확인
 - 싱가포르 공화국의 총리는 싱가포르의 행정 수반이며, 실질적 권력 기관인 내각의 대표. 또한, 모든 국가의 권한과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
 - 2024년 5월 15일, 로렌스 웨이는 전임자 리셴룽을 이어 싱가포르의 4대 총리로 취임. 독립 이후 출생한 첫 총리이며, 국가자체 '포스트 리(Lee) 체제'를 본격화하는 상징적인 인물
 - 2025년 5월 3일 총선에서 로렌스 웨이는 첫 총선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음. PAP는 전체 97석 중 87석을 확보하고, 득표율은 65.6%를 기록하여 2020년(61.2%) 대비 4.3%p 상승함.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권 신뢰 회복 의지를 반영한 결과임
 - 총선 이후 웨이는 경험 있는 장관진을 유지하면서도 신진 정치인을 포함한 내각 개편을 단행함.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세대교체를 병행하려는 의도가 나타남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싱가포르 산업정책 및 지속가능성 추진 전략

- 국가 경제성장부터 글로벌 현안을 아우르는 10개년 목표
 - 싱가포르 정부는 내수 성장을 위한 부문별 목표를 포함한 Economy 2030을 비롯해, 에너지 전환·지속가능성 실현·공급망 안정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요 전략도 점진적으로 발표

부문별 주요 전략 및 정책

영역	내용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onomy 2030(2022년 발표) : 무역, 기업,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싱가포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 발표. Trade 2030(무역), Enterprise 2030(기업), Manufacturing 2030(제조), Services 2030(서비스)로 구분됨
제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nufacturing 2030(M2030, 2021년 발표) : 제조업 부가가치(Value-Add)를 50%까지 성장 목표 • M2030 Career Initiative(2022년 발표) : 제조기업 인재유치 및 기술 인력양성 지원
교역확대 및 공급망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 2030('22년 발표) : 2030년까지 수출 1조 싱가포르달러, 역외무역 2조 미국달러 달성을 목표, 교역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 조호르·싱가포르 특구(JS-SEZ, 2025년 합의) : 물류·투자 협력 강화 및 국경 간 인력·자본 이동 촉진
에너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ional Hydrogen Strategy(2022년 발표) :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국가 탈탄소 전략 • 탄소세 경로(2022년 발표, 2024년 시행) : 2024~2025년 S\$25/톤, 2026~2027년 S\$45/톤, 2030년까지 S\$50~80/톤 단계적 상향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MP2040(2019년 발표) : 싱가포르 대중교통 발달을 위한 20개년 계획이며, 전철노선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plan 2030(2021년 발표) : 싱가포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아젠다로 2030년까지 목표를 설정,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전략을 포함함 • 기후 공시 로드맵(2025년 발표) : 상장기업 및 대형 비상장기업 대상 단계적 ESG·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자료: MTI, 싱가포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현안 대응 전략

-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 : 데이터센터·에너지 효율 혁신
 - Green Data Centre 로드맵에 따라, 단기적으로 300메가와트 이상 신규 데이터센터용 전력 용량 확보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연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확대가 가능함
 - 2024년 'Green Mark for DCs 2024' 도입으로 에너지 효율·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IT장비의 전력 소비를 최소 30% 절감하도록 설계된 싱가포르 표준을 도입

- 세제 및 비세제 인센티브 제공 : 2021~2026년까지 녹색 기술 또는 인증 기반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기업은 소득세 공제 혜택 대상
-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 : AI 안전성 검증 및 국제 연계 확대
 - 2024년 Generative AI Governance Framework 발표 이후, 싱가포르는 2025년 AI Verify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대폭 업데이트함. 이번 개정은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신뢰성 검증과 글로벌 규제·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 Global AI Assurance Pilot을 출범하여, 17개 기관의 실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정확성·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테스트 기준과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있음
 - AI Verify Foundation은 Global AI Assurance Sandbox,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가이드, Data Protection Trustmark 등 새로운 도구와 표준을 공개하며, AI의 투명성·설명가능성·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 글로벌 신뢰성 표준 확산을 주도하고 있음
- 국경 연계 성장 허브(말레이시아 연계) 구축 : JS-SEZ로 강화하는 공급망 통합과 투자유치
 - 2025년 1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 설립에 공식 합의함. 이 구역은 경제 중심지인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와 펜가랑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571km² 규모에 달함
 - 자동출입국검사·무인 통관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력·물류 이동 효율을 강화하고, 5% 법인세, 15% 개인소득세와 같은 파격적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경 이동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투자 유인을 크게 확대
 - 제조업, 디지털 서비스, 물류, 관광, 그린·디지털 경제 등 11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100개 프로젝트, 2만 개 고급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조호르바루-싱가포르 고속철도(RTS Link) 건설이 진행 중이며, 2026년 완공 예정. 해당 철도는 싱가포르와 조호르를 5분 내 이동 가능하게 하며, 세관·출입국 심사를 통합 운영해 국경 이동의 원활함을 강화할 전망임

□ 외국인 인력제도 개편 및 유연근무제 가이드라인 시행

- 고숙련 외국인 인력 기본 자격 임금 상향
 - Employment Pass(EP) 신규 신청자의 최소 월급 기준이 5,600 싱가포르 달러로 인상되며, 금융 서비스 분야는 6,200 싱가포르 달러가 적용됨(2025년 1월 1일 시행). 갱신 시점은 2026년부터 적용
 - S Pass 또한 3,300 싱가포르 달러(일반산업 분야), 3,800 싱가포르 달러로 신규 요건이 강화됨. 신규 신청은 2025년 9월부터, 갱신은 2026년 9월부터 적용

- 유연근무 요청 절차의 제도화

- 2024년 4월 발표,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된 '유연근무 요청 3자 가이드라인'은,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이에 대해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검토·회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 * 모든 고용주는 정식 요청접수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요청에는 유형, 기간, 사유, 시작일 등 필수정보를 포함해야 함
 - * 고용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합리적 거절 사유를 회신할 의무가 있음

□ ESG·환경 규제 강화, 기업 부담 확대 전망

- 기후 공시 의무화 단계적 시행

- 2025년 8월, 싱가포르 기업규제청(ACRA)과 싱가포르거래소(SGX)는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일정 일부를 연기한다고 발표
- 상장기업은 2025년부터 온실가스 직접 배출(Scope 1)과 간접 배출(Scope 2)을 보고해야 하며, STI(싱가포르 대표 지수) 편입 기업은 2026년부터 Scope 3(공급망 배출)까지 보고 의무가 확대됨
- 기타 대형 상장기업은 2028년 또는 2030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비상장 대기업(매출 1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자산 5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도 2030년부터 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됨
- 공급망 참여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배출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순 규제 대응을 넘어 해외거래·조달 과정에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해짐

- 탄소세 단계적 인상 확정

- 싱가포르는 탄소세 인상 로드맵을 확정하여, 2024~2025년 톤당 25 싱가포르달러, 2026~2027년 톤당 45 싱가포르 달러, 2030년까지 톤당 50~80 싱가포르 달러로 상향될 예정
- 이는 글로벌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다국적 기업 ESG 규제 정합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신호로 해석됨
- 에너지 다소비 업종(발전, 화학, 전자, 운송 등)은 비용 상승에 대비해 효율성 개선, 가격 전가, 탄소 크레딧 활용전략이 필수적임
-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전환 산업 및 재생에너지 연계 프로젝트 투자 확대가 기업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

3. 주요 이슈 Pick

가. 싱가포르의 ASEAN 탄소시장 협력 및 녹색금융 허브 도약

□ 싱가포르-태국 ASEAN 역내 최초 탄소배출권 협정 체결

- 2025년 8월, 싱가포르와 태국은 파리협정 Article 6에 근거한 ‘탄소배출권 협력 이행 협정(Implementation Agreement)’을 체결
 - 태국에서 발생한 고품질 감축 성과(ITMO)를 싱가포르 기업이 국제 탄소배출권(ICC)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
 - 단기적으로는 싱가포르 기업의 국제 탄소배출권(ICC) 활용 폭을 넓히고, 장기적으로는 녹색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
 - 싱가포르가 지역 탄소시장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자, ASEAN 역내 탄소시장 통합과 신뢰성 확보의 시발점임

싱가포르-태국 탄소배출권 협력 협정 주요 내용

영역	내용
체결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8월 19일, 제9회 싱가포르 지역 비즈니스 포럼(SRBF) 방콕 현장에서 체결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 기반 : 국제 감축성과 이전(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규정에 따른 양국 간 거래 체계
협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범위 : 태국 내 감축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ITMO를 싱가포르 기업이 국제 탄소배출권(ICC)으로 구매·사용 가능 • 탄소세 상쇄 : 싱가포르 탄소세 납부 시 ICC를 통해 최대 5%까지 상쇄 가능 • 품질 기준 : ITMO는 국제적 기준(예 : 환경적 무결성, 중복회피, 영구성 보장)을 충족해야 하며, 양국 정부의 검증·승인이 필수 • 적응 재투자 : 상쇄된 크레딧의 일정 비율은 태국 내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산림 관리, 재해 대응, 수자원 관리 등)에 재투자 • 이행 관리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와 태국 천연자원환경부(MONRE)가 공동으로 모니터링·이행 점검 • 추가 협력 가능성 : 향후 재생에너지·폐기물 관리 등 새로운 분야 프로젝트로 확대 검토

자료: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 국제 탄소배출권(ICC) 제도와 기업 활용 기회

- 싱가포르는 2021년부터 국제 탄소배출권(ICC)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탄소세 납부의 일정 비율을 ICC 구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2024년까지는 배출세의 최대 5%까지 ICC로 상쇄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ASEAN 역내 협정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ICC는 단순히 세금 감면 수단을 넘어 기업 ESG 전략, 글로벌 공급망 신뢰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
- 탄소저감 기술·설비, 신재생 에너지, 탄소회계 소프트웨어 기업에 새로운 수요 발생. 한국 기업이 이미 강점을 보유한 친환경 기자재(스마트 계측기, 고효율 설비 등)는 ICC 프로젝트와 결합해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 2030년까지 아시아 대표 녹색금융 허브를 목표로, ‘녹색금융 산업 계획(GFIT)’을 추진 중. 2025년부터는 EU 택소노미를 참조한 공통 녹색분류체계를 본격 적용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대출 심사에 ESG 평가가 의무화되는 추세
 - 글로벌 ESG 규제 강화와 맞물려 싱가포르는 ‘녹색 금융상품(그린본드, 지속가능채권, 전환채권)’ 발행이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ESG 인증·평가 기반 사업, 녹색기술 보유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가능성 확대. 특히 한국 기업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 기술(배터리 관리, 절전형 IT 인프라 등)은 녹색채권 자금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공급 기회

싱가포르 녹색금융 산업 계획(Green Finance Industry Taskforce, GFIT) 로드맵 주요 내용

영역	내용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1월 MAS(싱가포르 통화청) 주도로 발족, 2023년 4월 최종 보고서 발표 후 종료 • Singapore–Asia Taxonomy(녹색금융 분류체계) : 8개 산업 부문을 Green/Amber/Red로 구분, 아시아 현실적 탈탄소 경로 반영
주요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공시 가이드라인 : TCFD 권고 기반, 금융·기업 공시 의무 강화 촉진 • 녹색 무역금융 프레임워크 : 은행권의 거래 평가 기준 제시 • 산업별 White Paper : 부동산, 인프라, 전환금융 등 주요 분야별 심층분석 보고서
동향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FIT 종료 후에도 그 산출물은 싱가포르 녹색금융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 중 • 금융기관은 녹색·전환금융 투자 확대, 기업들도 ESG 공시·국제 인증 대응 필요성이 크게 증가

자료: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지속가능금융협회(SSFA), 싱가포르 은행협회(ABS)

나. 트럼프 관세에 대한 싱가포르 비상대응 : SERT 출범과 기업지원책

□ 2025년 미 ‘보편관세’(baseline 10%) 발표와 그 영향

- 미국의 기본관세 발표와 불확실성 지속
 - 미국은 2025.4.2. 행정명령을 통해 전 국가 대상 10% 기본관세를 공표
 - 싱가포르는 GDP 대비 무역 비중이 300% 수준에 달하는 초(超)개방경제. 미국의 보편관세는 동일하게 10%라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공급망 거점인 싱가포르에 가격경쟁력 하락 압박을 가져올 수 있음
 - 주요산업(정밀제조, 석유화학, 전자, 제약)이 미국 시장에 일부 의존, 원가 상승 및 기업 수익성 축소 가능성 확대

- 싱가포르 공급망 역할의 변화 및 중장기적 경제구조 변화 예상
 - 단기적으로는 수출 중심 산업 피해와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예측
 - 미국 관세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내 생산·조달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싱가포르의 물류·허브 기능은 '대체 경로'로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됨
 - 정부의 경제전략재검토(ESR) 과정에서 기존의 '무역을 통한 성장' 모델 한계를 공식적으로 점검 중, 내수 기반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바이오헬스, 친환경 기술, 디지털 금융) 강화 등 산업정책 재편이 예상됨
 - 미국과의 직접 거래에 제약이 생기면,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CPTPP, RCEP 등)를 활용한 간접 수출, 공급망 재배치 전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관세 환경 급변에 따른 싱가포르 정부 조기 조치와 기업 보조금

- 싱가포르 정부의 조기 대응
 - 총리 주도 국가 대응 태스크포스(SERT) 구성·운영, 간·김용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을 의장으로, 기업·근로자 지원, 공급망 회복력 제고, 중장기 전략 마련을 목표로 민·관·노를 묶는 3개 분야로 운영
 - 기업 적응(Adaptation) 보조금(최대 100,000 싱가포르 달러) 준비
 - 경제전략재검토(ESR) 착수 및 5개 위원회 구성(글로벌 경쟁력, 기술혁신, 기업가정신, 인적자본, 구조조정 영향관리)

관세 환경 적응을 위한 정부 지원책

영역	내용
기업 적응 보조금 (Business Adaptation Gra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환경 적응·공급망 재구성 비용 공동부담 보조금 기업당 최대 100,000 싱가포르 달러/기업(중소중견기업 우대) FTA·통상 컴플라이언스/법무 자문, 공급망·물류/재고 최적화, 제조 재구성 등. 2025년 10월 개시(2년 한시)
법인세 환급(CIT Rebate) & 현금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YA2025 법인세 50% 환급 2024년에 로컬 직원 1인 이상 고용한 활동기업에 최소 2,000 싱가포르 달러 현금보조(자동 지급)
무역금융 한도 영구 상향 (EFS Trade Lo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금융 수요 대응을 위해 최대 대출한도 영구 상향 최대 대출한도 5 → 10m 싱가포르 달러 상향
해외진출 비용 200% 공제 연장 (DTD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화(시장개척·투자개발) 적격 비용 200% 공제 유지 제도 2030.12.31.까지 연장
신시장 개척 상향한도 연장(M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시장당 100,000 싱가포르 달러 상향한도 적용기간 2026.3.31.까지 연장

자료: 싱가포르 재무부(MOF), Enterprise Singapore(ESG), 싱가포르 국세청(IRAS)

다. 싱가포르의 녹색경제 전략 : 2050 Net-Zero 달성

□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싱가포르 전략 추진 방향과 실행 조치

- “National Hydrogen Strategy” 추진방향 발표(2022)
 - 싱가포르는 현재 전력의 약 95%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다변화 및 탈탄소 전환이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부각됨
 - 2050년까지 Net-Zero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 탈탄소화 경로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
 - 주요 5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 : ①첨단수소 활용 실험, ②연구개발 실시를 통한 발전, ③정부-업계-국제 파트너간 협력을 통한 저탄소 공급망 형성 및 확대, ④새로운 인프라 개발, ⑤기업에 대한 기회와 인력개발 제공

싱가포르 주요 미래 에너지원

에너지원	방향
천연 가스(Natural Gas)	천연가스 공급원 다양화 및 발전 효율 향상 목표
태양열(Solar)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통한 태양광 에너지 극대화
지역 전력망(Regional Power Grid)	지역 전력망을 통한 청정 에너지 수입, 지역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저탄소 대체재(Low-Carbon Alternatives)	지열, 수소 발전과 같은 저탄소 대안 투자

자료: MTI

- 수소경제 실행 가속화 전략 주요 조치(2025)
 - (수소 혼소 발전소 건설 승인) 주롱 아일랜드에 신규 복합화력 발전소 건립 허가.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100% 수소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
 -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특히 암모니아를 활용한 혁신적 수소 운송·연료 기술을 포함 지원 범위를 확장
 - (법·정책 프레임워크 정비) 수소 경제 도입을 위한 법·정책 연구 추진, 인증제도와 안전 가이드라인, 인력양성 및 거버넌스 체계 마련
 - (수소 생태계 협력 플랫폼 구축) 연구기관·스타트업·투자자 간 협력을 촉진하는 수소 생태계 맵 제작, 밸류체인 전반의 협업 경로 시각화
 - (국제 공급망 및 전력망 연계 강화) 호주, 인도네시아 등 청정에너지·수소 공급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세안 전력망 연계 프로젝트와 연동해 수입 다변화 병행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
 - 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 및 저지대 지형으로 해수면 상승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2100년까지 싱가포르 주변 해수면이 최대 1m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싱가포르 국립수자원청(PUB),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립대 NUS와 함께 연구센터 CFI Singapore(Coastal Protection and Flood Resilience Institute) 설립(2023.9.)
 - *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에서 1억 2,500만 싱가포르 달러 예산을 투입한 해안보호 및 홍수역량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
 - * NUS(National University Singapore) 중심으로 4개 파트너기관(난양기술대학교, 싱가포르 기술디자인 대학교, 싱가포르기술연구소, 과학기술연구청)이 싱가포르 맞춤형 혁신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 예정
- 동쪽 해안선 방제벽(Sea Wall) 계획 프로젝트
 - 싱가포르 동부는 저지대 특성상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장기적인 해안 방재 대책이 국가적 우선 과제로 부각됨
 - East Coast Park 일대에 연속적인 방제벽(Sea Wall)을 설치하여 해수면 상승 대비
 -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재 인프라 투자로, 해외 기업에는 해양토목·친환경 건축자재·스마트 홍수 모니터링 기술 분야 협력 기회 제공
 - * 단순 콘크리트 장벽이 아닌, 'Living Seawall' 개념을 적용해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해양 생물 서식처와 친수 공간을 함께 조성
 - * 2025년 Site-Specific Study 완료, 시범 설계안 확정. 2026년부터 세부 설계·법제화(Protection Bill, Code of Practice)와 연계해 공사 착수 예정

Long Island 프로젝트



자료: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

라. 고령화 사회 대응 : 인구문제 해결, 노인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복지 강화, 지원 프로그램

-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4년에 이미 20%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약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고령층이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 환경 조성과 노후 재정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
 - 2025년부터 법정 은퇴 연령을 기존 63세에서 64세로 조정, 2030년까지 65세로 늘릴 예정. 재고용 연장도 병행되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유도
 - 개인이 자발적으로 MediSave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가 최대 1,000 싱가포르 달러까지 1:1 매칭 지원. 고령층의 의료비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목적
 - 2025년 고령층 특별 지원금 패키지 : 현금 200~300 싱가포르 달러 지급, MediSave 150 싱가포르 달러 충전, CPF 400~1,000 싱가포르 달러 적립 등 복합지원 제공
- 저출산 · 고령화 문제 심화로 의료보험 및 건강지원 관련 정부 지출이 급증, 성장동력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중
 - 'Age Well SG' 고령 인구의 복지 증진 목표를 두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2030년까지 노인 인구의 30%가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가족과 커뮤니티가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둠. 친구 만들기 서비스, 신체 운동 수업,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 등이 포함됨
 - 2025년에는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행 단계에 진입하여, 능동적 노화 센터(AAC)의 시설 업그레이드, 장기 요양 서비스 보조 확대, 노인 인구 밀집 지역에 정원, 피트니스 트레일, 치매 친화적 요소를 포함한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기반 시설 개선(SUP) 프로젝트 추진

싱가포르 고령화 대응 전략

주요 이ни셔티브	내용
노동시장·은퇴 제도	은퇴 연령 상향(2025년 64세 → 2030년 65세), 재고용 연령 상향(69 → 70세), 시니어 재교육·재취업 지원
재정·의료비 지원	MediSave 매칭 제도(최대 1,000 싱가포르 달러), Silver Support 현금 보조 확대, 고령층 특별 지원금
주거·생활환경 개선	EASE 프로그램 민간주택 확대, Community Care Apartments(CCA) 도입·확장, Silver Upgrading Programme(치매 친화 공간·피트니스 트레일 조성)
커뮤니티 기반 돌봄	Active Ageing Centres(AAC) 확대, Age Well Neighbourhoods 시범 운영, 사회적 연결·봉사 기회 확대
돌봄·간병 지원	Home Caregiving Grant 월 최대 600 싱가포르 달러 확대, HPC+ 서비스 전국 도입(24/7 모니터링·낙상 대응),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자료: 싱가포르 보건부(MOH), Forward SG

□ 고령화 인구를 위한 스마트 복지 및 고령층 디지털 포용

- 싱가포르는 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복지·돌봄 서비스와 결합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복지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노인의 건강·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 보건·복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SPICE 플랫폼(Smart Platform for Integrated Care and Enablement)’은 환자의 의료기록과 사회복지 서비스 이력을 연계하여 의료진, 사회복지사, 가족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SG Assist’ 애플리케이션은 가족과 간병인이 함께 돌봄 일정을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
 - ‘Silver Infocomm’ 프로그램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량 교육으로, 온라인뱅킹, 전자결제, 원격진료 활용 등을 실습 중심으로 지도
 - 커뮤니티 디지털 앰배서더 제도를 도입해, 젊은 세대가 직접 고령층에게 스마트폰·앱 사용법을 지원하도록 하여 세대 간 교류를 촉진
 - 커뮤니티 기관 및 개인에게 디지털 접근성, 역량 강화, 사이버 웰빙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 편당 지원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1
2. 유망 산업	44
3. 협력 기회	59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싱가포르는 무역 중심의 개방형 경제로, 28건의 FTA를 기반으로 글로벌 교역 허브로 기능
- 낮은 법인세와 안정적인 정책 환경 덕분에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집중된 기업 친화적 시장
- 다문화 사회와 세계 최고 수준의 구매력이 다양한 소비 수요를 창출하나, 환율 절상·무역 불확실성으로 신중 소비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

가. 시장 특징

□ 개방형 자유무역 경제

- 싱가포르는 국토가 협소하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도시국가로서, 무역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개방형 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 전체 수입품의 99% 이상 품목이 무관세로, 사실상 ‘무관세 국가’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
 - * 다만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환경적 목적이 특별소비세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25년 총 28건의 FTA를 체결·발효 중으로, 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와 광범위한 협력 관계 구축

□ 기업 친화적인 환경

- 싱가포르는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안정되고 일관된 정부 정책을 펼치는 親기업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며 국가 경제발전을 추구
- 17%의 낮은 법인세, 영어 공용화, 투명하고 빠른 행정절차, 공정한 사법제도, 탄탄한 사회 및 산업 인프라 등의 이점을 제공해 상당수의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로 활용하고 있음

* 2024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 기업 경영하기 좋은 국가로 싱가포르 세계 1위 차지

□ 다문화 기반 시장 수요

-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이루어져 새로운 트렌드를 통해 동남아시아 진출을 염두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적합한 테스트베드 시장으로써 활용 가능
 - 중국계(75.6%), 말레이계(15.1%), 인도계(7.6%) 및 기타(1.7%)로 구성되며,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
 - 불교(26.0%), 기독교(17.0%), 무교(22.0%), 이슬람교(18.0%), 힌두교(8.0%), 기타(9.0%) 다양한 종교별 인구 구성비를 보임

□ 높은 구매력 및 신중한 소비성향

- 싱가포르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구매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2024년 1인당 GDP(PPP)는 약 132,600 미국 달러, 2025년에는 약 136,400 미국 달러로 전망됨
 - 한편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5년 기준)에서는 156,760 미국 달러로 추정되어 있으며, 싱가포르는 PPP 기준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됨
- 글로벌 통화 강세 및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
 - 2025년 7월 말 기준 싱가포르 달러는 미 달러 대비 약 5.4% 절상되어,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위축 시키는 동시에 현지 소비자의 해외 소비 증가를 유발하며 국내 소매업 성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무역 긴장, 관세 재부과 가능성,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은 기업 신뢰도와 가계 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싱가포르 소비자들은 대형 지출을 보류하고 신중 소비 경향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가격 대비 가치가 높은 제품 및 필수품 소비가 중심이 되는 양상이 뚜렷해짐

□ 식품·소비 관련 인증 환경

- 식품·건강보조제 판매 규제 및 인증요건
 - 싱가포르 내에서 식품 및 건강보조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청(SFA) 등록과 표시 기준 준수가 필수
 - 기능성 성분을 포함한 건강보조제는 보건과학청(HSA)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최근 건강 기능성 제품 수요 확대에 따라 표시·광고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
- 할랄(Halal)인증을 통한 시장 접근성 확대
 - 싱가포르 인구의 약 18%가 무슬림이며, 무슬림 관광객 수요도 커서 할랄인증(MUIS) 확보 시 시장 진입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유리
 -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UAE·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할랄인증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해 무슬림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

- Nutri-Grade 제도의 확산과 소비 트렌드 변화
 - 2022년부터 포장 음료·자동판매기 음료에 Nutri-Grade 영양 등급제(A~D 등급, 당분·포화지방·나트륨 함량 기준) 표시 및 고당 음료 광고 제한 의무 시행
 - 2023년 12월 30일부터는 제도 적용 대상이 카페·식당·병원 등에서 판매되는 신선 조제 음료까지 확대됨
 - 향후 2027년 중반에는 조미료, 소스,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표시 의무가 추가 확대될 예정이며, 건강·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정책적 흐름 강화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수출 증가세 유지, 미 관세 변수로 성장세 제약 가능성
 - 2024년 총 수출액은 5,048억 미국 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 코로나19 충격을 완전히 극복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반등세를 보임
 - 2025년 9월 기준 연간 누적 수출액은 4,117억 미국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이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부과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수출물량 확보(front-loading) 영향으로 분석됨.
 - 다만 하반기에는 이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반도체·바이오메디컬 품목 고율 관세 검토가 현실화될 경우 성장세가 제약될 가능성 존재.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완만한 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수입 규모) 싱가포르 수입 규모 변동세, 2026년 완만한 증가세 가능성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공급망 차질과 수요 둔화로 수입이 감소했으나, 2021~2022년에는 세계 경제 정상화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함
 -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IT 수요 위축으로 -11.1%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총 수입액이 4,575억 달러(+8.3%)로 반등하며 국제 유가 상승, 반도체 수요 회복,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로 전환함
 - 2025년 9월 기준 연간 누적 수입액은 3,645억 미국 달러로 전년 동기(3,380억 미국 달러) 대비 +7.8% 증가하며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유지. 2026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글로벌 교역 둔화 리스크로 인해 완만한 증가세에 그칠 전망임

싱가포르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수출	475.4	-7.7	504.8	6.2	411.7	10.1
수입	422.4	-11.1	457.5	8.3	364.5	7.8
무역수지	53.0	33.6	47.3	-10.7	47.2	31.7
총 교역	897.8	-9.3	962.3	7.2	776.2	9.0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11.03.)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GTA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싱가포르의 3대 수출대상국은 중국(점유율 -13.2%), 홍콩(13.4%), 말레이시아(4.0%)
- 최근 이들 3개국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 역내 공급망 연계, 전자·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함
- 한국은 최근 4년 연속 7~8위권을 유지하며 전체 수출의 약 4~5% 내외를 차지하는 안정적인 시장으로 자리함

對싱가포르 10대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순위	국가	수출액	점유율	증감률
-	총 수출	504,803	100.00	6.2	-	총 수출	411,700	100.0	10.1
1	중국	70,702	14.0	7.9	1	중국	45,386	11.0	-13.2
2	홍콩	55,270	11.0	9.7	2	홍콩	45,261	11.0	13.4
3	말레이시아	52,352	10.4	17.9	3	말레이시아	41,231	10.0	4.0
4	미국	43,122	8.5	-2	4	미국	37,578	9.1	18.9
5	인도네시아	39,807	7.9	12.6	5	대만	34,549	8.4	101.7
6	대만	24,299	4.8	18.3	6	인도네시아	29,062	7.1	-4.3
7	태국	21,912	4.3	14.8	7	태국	18,430	4.5	7.3
8	한국	21,270	4.2	3	8	한국	16,742	4.1	6.7
9	일본	17,751	3.5	-8.2	9	베트남	15,613	3.8	23.2
10	베트남	17,273	3.4	3.7	10	인도	13,429	3.3	17.9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11.3.)

- (수출 품목) 2025년 9월 기준 싱가포르의 3대 수입 품목은 전자 집적회로 및 전기·전자기기(14.9%), 기계류 및 기계 부품(35.6%), 석유제품 및 광물성 연료(-8.3%) 순서임

싱가포르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미국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	총 수출	504,803	6.2	-	-	총 수출	411,700	10.1
1	85	전기·전자기기	175,763	8.7	1	85	전기·전자기기	147,250	14.9
2	84	기계류 및 기계 부품	91,586	23.6	2	84	기계류 및 기계 부품	92,088	35.6
3	27	석유제품 및 광물성 연료	56,152	-4.6	3	27	석유제품 및 광물성 연료	40,124	-8.3
4	98	기타 (특수분류 품목)	32,419	6.3	4	98	기타 (특수분류 품목)	22,415	-11.0
5	90	정밀·의료기기 및 광학기기	25,221	7.3	5	90	정밀·의료기기 및 광학기기	19,680	6.0
6	71	귀금속·보석류	23,521	25.2	6	71	귀금속·보석류	17,241	15.6
7	39	플라스틱 제품	13,180	4.5	7	39	플라스틱 제품	9,197	-6.4
8	29	유기화학제품	11,697	-19.9	8	29	유기화학제품	7,632	-19.7
9	33	향료·화장품	9,446	-0.9	9	33	향료·화장품	6,782	-5.6
10	30	의약품	8,406	-23.9	10	30	의약품	6,008	-8.0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10.29.)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2025년 9월 기준 싱가포르의 3대 수입대상국은 대만(점유율 24.2%), 중국(10.0%), 말레이시아(7.8%)임
 - 2024년에는 대만, 중국, 미국이 상위 3위를 차지했으며, 당시 미국(11.87%)이 3위, 말레이시아(11.36%)가 4위였음
 - 그러나 2025년 9월에는 말레이시아(11.2%)가 미국(10.9%)을 소폭 앞서며 3위를 차지, 최근 3년간 말레이시아와 미국이 교차로 상위권에 진입하는 흐름을 보임
 - 대만은 반도체·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조달 안정성에 기여하고, 중국은 전자·기계·석유화학 등 전통적 핵심 공급국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미·중 갈등이 리스크로 작용하며, 말레이시아는 지리적 인접성과 역내 물류 연계성을 바탕으로 전자·석유화학품 중심 수입국으로서 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對싱가포르 10대 수입국

(단위: 백만 미국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	총 수입	457,487	100.00	8.30	-	총 수입	364,454	100.0	7.8
1	대만	63,102	13.79	29.85	1	대만	56,773	15.6	24.2
2	중국	56,662	12.39	-3.60	2	중국	45,784	12.6	10.0
3	미국	55,671	12.17	7.13	3	말레이시아	40,909	11.2	7.8
4	말레이시아	51,402	11.24	7.95	4	미국	39,849	10.9	-4.3
5	한국	28,728	6.28	11.94	5	한국	23,755	6.5	9.8
6	일본	22,233	4.86	4.85	6	일본	17,878	4.9	13.4
7	인도네시아	15,677	3.43	-1.98	7	인도네시아	14,174	3.9	26.2
8	프랑스	12,971	2.84	-5.88	8	아랍에미리트 연합	11,596	3.2	22.8
9	아랍에미리트 연합	12,873	2.81	5.31	9	프랑스	9,712	2.7	-0.3
10	태국	11,362	2.48	-5.44	10	태국	9,573	2.6	16.3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11.03.)

- (수입 품목) 2025년 9월 기준 싱가포르의 3대 수입 품목은 전기·전자기기(16.3%), 기계류 및 기계 부품(28.9%), 석유제품 및 광물성 연료(-8.2%) 순서임

싱가포르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미국 달러, 전년 대비 증감률%)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	-	총수입	504,803	6.19	-	-	총수입	364,454	7.84
1	85	전기·전자기기	175,763	8.7	1	85	전기·전자기기	120,921	16.32
2	84	기계류 및 기계 부품	91,586	23.56	2	84	기계류 및 기계 부품	77,588	28.88
3	27	석유제품 및 광물성 연료	56,152	-4.59	3	27	석유제품 및 광물성 연료	60,374	-8.72
4	98	기타(특수분류 품목)	32,419	6.29	4	71	귀금속·보석류	20,097	7.47
5	90	정밀·의료기기 및 광학기기	25,221	7.34	5	90	정밀·의료기기 및 광학기기	11,428	11.89
6	71	귀금속·보석류	23,521	25.19	6	88	항공기 및 우주선	5,636	-16.91
7	39	플라스틱 제품	13,180	4.47	7	39	플라스틱 제품	5,155	-1.58
8	29	유기화학제품	11,697	-19.86	8	29	유기화학제품	4,851	-23.74
9	33	향료·화장품	9,445	-0.94	9	38	기타 화학제품	3,876	10.17
10	30	의약품	8,406	-23.88	10	30	의약품	3,736	-7.22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10.29.)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한–싱 교역 회복세와 품목별 상이한 흐름, 중요 교역국으로 자리잡음
 - 2024년 한국과 싱가포르 간 교역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5년에도 꾸준한 확대세가 나타남
 - 수출은 일부 품목군에서 감소했으나 총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수입은 전자기기·기계류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감
 - 한국은 최근 수년간 싱가포르의 TOP10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해 왔으며, 특히 반도체·정밀기계·화학제품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됨. 이는 싱가포르 입장에서 한국이 글로벌 첨단 공급망과 연계되는 전략적 교역국임을 의미하며, 향후 양국 교역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반도체·에너지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교역 규모
 - (수출) 2024년 對싱 수출액은 약 187억 5,000만 미국 달러로 전년 대비 7.2% 감소하였으며, 2025년 7월 누계 기준 약 111억 3,000만 미국 달러로 2.9% 증가함
 - (수입) 2024년 對싱 수입액은 약 106억 미국 달러로 전년 대비 5.5% 감소하였으며, 2025년 7월 누계 기준 약 64억 6,000만 미국 달러로 7.7% 증가세로 전환됨
 - (무역수지) 코로나19 이후 對싱가포르 무역수지 흑자 지속, 2025년에도 흐름 이어짐
 - * 2019~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저조하였으나, 2022년에는 98억 5,700만 달러로 회복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출이 수입을 상회함을 의미함. 2023~2024년에도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며 꾸준한 흑자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반도체·정밀기계 품목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임
 - * 2025년 7월 기준 누계 무역수지는 46억 7,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48억 2,600만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함. 다만 2025년 하반기에는 선행 수출 효과가 약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축소될 가능성성이 있음

한국의 對싱가포르 5년간 무역 수지

(단위: 백만 달러,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누계)
3,457	9,857	7,573	7,664	4,678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09.08.)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한국의 대싱가포르 주요 수출 품목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집적회로 반도체, 선박, 휘발유가 상위 3위를 차지함
- 이외에도 경유와 금 수출이 크게 늘며 상위권으로 부상한 반면, 제트유·등유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음. 또한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부품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의 대싱가포르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18,224	-2.8	-	총 수출	11,134	2.9
1	집적회로반도체	4,071	-11.1	1	집적회로반도체	3,000	20.7
2	선박	3,479	-3.5	2	선박	1,834	-1.4
3	휘발유	2,543	13.1	3	휘발유	1,670	1.4
4	경유	1,307	-5.1	4	경유	987	25.9
5	제트유및등유	896	49.3	5	제트유및등유	281	-53.9
6	윤활유	463	-3.3	6	금	281	182.8
7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450	20.3	7	윤활유	274	21.5
8	반도체제조용장비	372	32.2	8	반도체제조용장비	258	39.6
9	나프타	344	-18.1	9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48	11.3
10	기타석유제품	285	-10.4	10	나프타	209	-2.6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9.8.)

- (수입) 한국의 대싱가포르 주요 수입 품목은 여전히 집적회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중유가 상위를 차지함
- 이외에도 컴퓨터, 실리콘웨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등 ICT·반도체 관련 품목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약품과 선박은 등락이 있었으나 여전히 주요 수입 품목으로 나타남

한국의 對싱가포르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	총 수입	10,560	-5.5	-	총 수입	6,456	7.7
1	집적회로반도체	2,954	0.4	1	집적회로반도체	1,851	18.2
2	반도체제조용장비	2,104	-2.8	2	반도체제조용장비	1,495	31.6
3	중유	586	-23.4	3	중유	337	-25.3
4	컴퓨터	396	16.9	4	컴퓨터	326	58.2
5	의약품	360	35.3	5	실리콘웨이퍼	232	22.7
6	선박	346	340.6	6	기타정밀화학제품	194	-1.3
7	기타정밀화학제품	345	0.6	7	의약품	189	-29.4
8	실리콘웨이퍼	335	-2.5	8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164	29
9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10	28.6	9	선박	125	54.7
10	나프타	209	-82.1	10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114	0.6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9.8.)

- 한국의 싱가포르 내 수출시장 점유율

- 2025년 7월 기준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6.5%로, 2024년 말 대비 소폭 상승(+0.2%p)하였음. 다만 하반기 싱가포르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함
- 對싱가포르 수출은 집적회로 반도체(30억 달러, +20.7%)가 주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부품 역시 전자산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음. 특히 데이터센터·클라우드 확장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석유화학·정제유 제품도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 변동성에 민감하나, 역내 에너지 허브로서의 싱가포르 수요를 기반으로 꾸준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 제품은 특히 반도체 및 정밀기기 등 기술집약적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전자산업 수요 증가와 연계해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수출이 확대되며 전통적인 B2B 산업재 중심 구조에서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한류 확산과 온라인 유통망 활성화로 '프리미엄·트렌디'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으나, 일본·중국·글로벌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로 차별화 전략과 현지화 마케팅이 필요함

□ 싱가포르 주요 수출 성공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싱가포르 진출전략 : 산업용 밸브·배관재 기업 F사

- 제품의 비교우위
 - F사는 특수 밸브·배관재 전문기업으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일체형 PFA 라이닝 밸브를 보유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은 내화학성·내열성·내구성이 뛰어나며, 플라스틱-금속 복합 구조를 적용해 서비스 수명을 기존 제품 대비 크게 연장함
 - 균일한 두께의 벨로우즈 제작과 나사선 구조의 플랜지 결합 방식으로 품질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일본산 대비 빠른 수출허가 절차도 강점임
- 필수 인증 : CRN PFA Lined Ball Valve, CE Quality Assurance Certificate, ISO 9001:2015
- 성약 소요기간 : 약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이 현지 바이어(T사)를 발굴 → 온라인/전화 접촉을 통해 소개
 - 바이어 관심 확보 후, 무역관이 F사 관계자와 대면 미팅을 주선
 - 일본계 기업과 병행한 제품 테스트와 품질 검증 과정을 거쳐 신뢰를 확보 → 최종 성약에 성공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F사의 제품은 니치마켓용 특수 산업재로 반복적·대량 수출은 어렵지만, 반도체·정밀화학·수처리·2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
 - 싱가포르 시장은 일본계 화학·반도체 기업의 영향력이 크지만, 이번 사례처럼 품질 검증만 통과하면 일본 제품 의존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
 -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 및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가 가능해, 한국 기업에게 동남아·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음
 - F사는 중국 생산기지 구축을 계획 중으로, 향후 리드타임 단축과 동남아 수요 대응력 강화가 기대되며, 이는 한국 기업이 지역 내 생산·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성공 사례로 보는 싱가포르 진출전략 : 김 기업 D사

- 제품의 비교우위
 - 40년 업력을 통해 축적된 김(Seaweed) 생산 노하우를 보유
 - 자동화 된 원초 냉동창고 보유 및 원초 출입 데이터를 활용한 철저한 재고관리
 - 지속적인 품종 및 제품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
- 필수 인증 :
 - SFA(싱가포르 식품정) 수입허가
 - 라벨링(영문) : 제품명, 성분, 중량, 수입자/제조자, 원산지 등 정보 표기
- 성약 소요기간 : 약 10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 KOTRA 무역관이 보유한 현지 식품 유통사 리스트 및 기업 DB를 바탕으로 바이어 탐색
 - 진성 바이어 필터링 작업(현지 대형마트 납품 가능 유통망 보유, 한국 식품 수입 경험, 신뢰도 검증) 진행
 - 담당자 정보 확보 후 A사와의 미팅 주선, 제품 샘플 제공 및 품질 테스트를 거쳐 계약 성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싱가포르 내 김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품목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현지 식문화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수출 도전
 - F사의 경우 40년 업력과 대규모 생산 역량을 강조하고, 무역관의 신뢰 보증을 결합해 대형 유통망 바이어와 직거래를 성사시킴, 그 결과 초도 물량부터 큰 규모(USD 31,645)로 수출이 이뤄졌고, 이어서 2차 계약까지 연속 성사, 안정적 거래 기반을 마련
 - 본 사례는 한국 식품기업이 업력·품질·공신력을 앞세워 레드오션 시장에서도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임



성공 사례로 보는 싱가포르 진출전략 : 식품 기업 P사

- 제품의 비교우위
 - 국내 대기업 브랜드와 차별화된 지역 특산·전통·프리미엄 김치 제품군 보유
 - 저가 중국산 김치가 범람하는 시장에서 '한국산 정통성'과 '프리미엄 이미지' 강조
- 필수 인증 : 싱가포르 식품청(SFA) 수입 허가, HACCP 등의 위생 관련 국제인증
- 성약 소요기간 : 바이어 발굴부터 성약까지 2개월 소요 후 지속 성약 창출 중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을 통해 신선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현지 유력 벤더사를 소개받아 시장에 진입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판촉전·전시 행사 시 김치 제조 시연 등 체험형 홍보로 바이어와 소비자 관심을 효과적으로 유도
 - 소포장 김치, 절임 반찬류 등 B2B·B2C를 모두 겨냥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 현지 주요 벤더사와 협업하여 오차드 다카시마야 백화점 등 랜드마크급 유통 채널 입점 성과 달성
 - 할랄인증 취득을 준비하며, 싱가포르 시장 성공을 발판으로 말레이시아 등 인근 무슬림 시장으로 확대 계획
 - 2024년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누적 수출액 5만 불 이상 달성
 - 품목 경쟁률이 치열하고 유통망 협업 기회가 제한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제품 차별화와 수출 준비도, 무역관의 유통망 협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초보기업임에도 성과 창출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됨

□ 주요 경쟁국 동향

- 싱가포르의 주요 수입국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4년 중국산 수입은 싱가포르 전체 수입의 13.8%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13.2~13.8% 범위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2025년 7월 기준 누계는 12.4%로 소폭 하락하면서, 고부가 제품군에서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보완할 여지가 존재함
 - 일본, 한국, 베트남의 수입 점유율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일본은 4.9~5.6%, 한국은 6.1~6.5%, 베트남은 1.2~1.4% 수준에서 등락을 보여왔음
 - 한국은 6%대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중국·일본 사이의 중견 공급국으로 자리. 향후에는 반도체·정밀기계 등 주력 산업재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K-뷰티·식품류 등 소비재 수출을 통해 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함

싱가포르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국가명	(단위: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중국	13.24	13.91	13.79	12.41
일본	5.62	5.02	4.86	5.01
한국	6.45	6.08	6.28	6.48
베트남	1.16	1.16	1.40	1.82

자료: Global Trade Atlas

□ 주재국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개방형 경제, 자유무역 정책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 유지
 - 천연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따르면 총 교역액은 국내총생산(GDP)의 300% 이상에 달함
 -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 규제 역시 최소화되어 있음
- 2025년 9월 기준 28개 FTA 체결, 전 세계 GDP의 85% 이상 포괄
 - FTA는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회원국 기업들의 무역 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최종 가공 또는 재수출 거점으로 활용하는 외국 제조업체에도 전략적 이점을 제공
 -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6년 3월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KSFTA)을 발효했으며, 이어 2007년 6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도 발효됨
 - 상품 교역 측면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싱가포르산 제품의 91.6%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혜택을 받고 있음, 투자 분야 역시 KSFTA에 포함되어 있어, 양국의 투자자와 투자 자산이 포괄적 약속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음
 - 또한, 2023년 1월 발효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파트너십협정(KSDPA)을 통해, 디지털 무역·데이터·핀테크·전자결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강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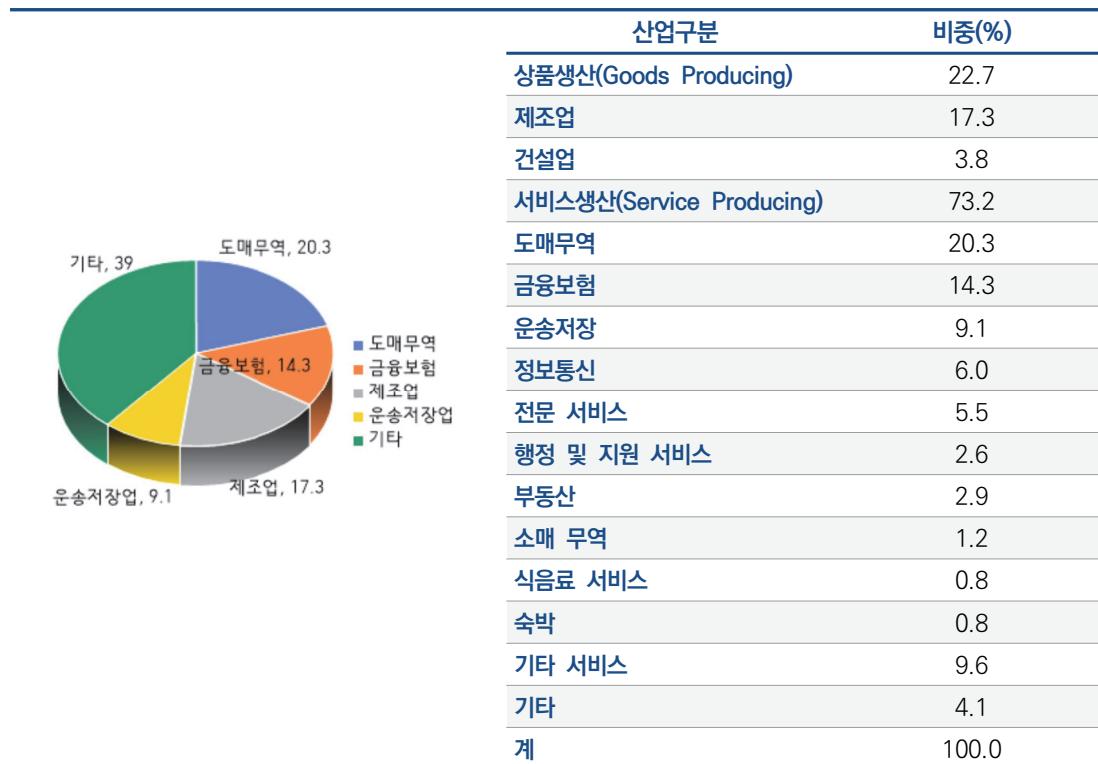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싱가포르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중 구조를 기반으로, 글로벌 교역·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제조업은 전자·정밀·운송공학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민감하나, 첨단 제조와 바이오·화학 분야 확장이 성장동력으로 작용

- 서비스업은 도매무역·금융·물류가 핵심 축으로, 역내 교역 허브와 국제 금융센터 기능을 동시에 수행
- 관광·소매·부동산 등 내수 기반 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으나, 도시 경쟁력 및 글로벌 인재유치와 직결되어 경제 구조의 균형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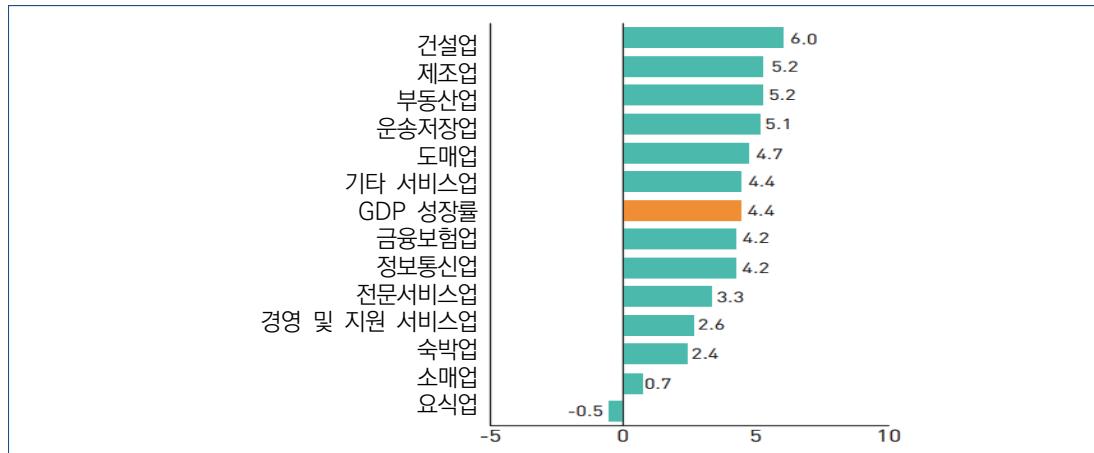
싱가포르 2025년 기준 산업 구조 현황



- 2025년 2분기 주요 산업 성장세 지속, 건설·제조·부동산 중심 고성장
 - 싱가포르 경제는 2025년 2분기 전년 대비 4.4% 성장하며 1분기(4.1%)에 이어 확장세를 지속함
 - 산업별로는 건설업(6.0%)·제조업(5.2%)·부동산업(5.2%)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함

〈2025년 2분기 싱가포르 GDP 및 산업별 성장률〉

(단위: %)



자료: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건설업) 2024년 건설 수요, 싱가포르 건설청(BCA) 중간 수정 전망치 상회
 - 2024년 건설 총 수요 잠정치는 명목 기준 442억 싱가포르 달러로 집계되어, BCA가 연중 발표한 수정 전망치(350~410억 싱가포르 달러)를 상회함
 - 공공 기관 프로젝트와 더불어 공공 및 민간 주택 프로젝트 확대에 기인함
- (제조업) 2025년 2분기 제조업 생산, 전년 동기 대비 5.2% 확대
 - 화학(-0.6%)과 일반제조업(-11.7%)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성장세 기록
 - 운송공학, 정밀공학, 전자산업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견인했으며, 바이오메디컬 제조업도 의약품 생산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 유지
 - 반면 화학 부문은 산업가스·바이오연료 등 특수제품 생산 감소로 위축되었고, 일반 제조업은 음료·담배류 및 금속제품 생산 감소로 부진

2025년 2분기 제조업 전년 대비 증감률

산업 클러스터	전년 대비 성장률(%)
운송 엔지니어링	18.8
정밀 엔지니어링	10.3
전자	6.6
바이오메디컬	4.9
화학	-0.6
일반제조	-11.7

자료: MTI

- (부동산업) 2025년 2분기 부동산업,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
 - 전분기(7.5%)에 이어 모든 세부 시장에서 확장세 기록
 - 민간 주택시장은 공사인증 지급액이 10.2% 증가했으며, 주택 판매량은 5,128세대로 전년 동기(4,915세대) 대비 확대됨
 - 민간 상업용 오피스 공간 수요는 0.7%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고, 소매 공간 수요도 0.4% 증가하며 전분기(1.7%) 성장세를 이어감
 - 민간 산업용 공간 수요 역시 1.1% 증가하며 전분기(0.9%)에 이어 완만한 성장세 지속

라. 투자

□ 싱가포르 투자유치 현황

- 지경학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2024년 글로벌 FDI는 감소하였으나, 싱가포르의 FDI는 전년 대비 증가해 미국에 이어 2위 기록
 - 2024년 싱가포르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434억 미국 달러로 전년 대비 6% 증가

2023~2024년 주요국 연간 FDI 변화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연도	전세계	미국	싱가포르	중국	유럽	캐나다	브라질	호주
2023년	1,673	233	135	163	439	47	64	31
2024년	1,493	279	143	116	182	64	59	53
증감율	-11%	20%	6%	-29%	-58%	38%	-8%	75%

주: UNCTAD DATA 자료상으로는 2024년 글로벌 FDI는 1조 5,0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으나, 유럽 일부국가의 중개형 자금흐름(Conduit Financial Flow) 변동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FDI는 감소한 것으로 UNCTAD에서는 분석
자료: UNCTAD(World Investmenet Report 2025)

-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일부 변동이 있으나 점진적인 개선 흐름 유지
 - UNCTAD에 따르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716억 미국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 1,310억 미국 달러로 증가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 716억(2020년) → 1,310억(2021년) → 1,421억(2022년) → 1,351억(2023년) → 1,434억(2024년)

□ 싱가포르 주요 투자유치 산업

- 아세안 금융 허브 특성에 맞게 금융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음
 - 2023년 기준 싱가포르의 금융보험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1조 7,884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며, 2019~2023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15%에 달함

- 유통물류 및 제조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이 유입되고 있음
 - 2023년 기준 유통물류는 4,111억 싱가포르 달러, 제조업은 2,799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9~2023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와 4%로 나타남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 유치 동향

(단위: 십억 싱가포르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융보험	1,038.60	1,192.75	1,425.43	1,488.34	1,788.36
유통물류	277.84	312.66	346.39	404.30	411.14
제조업	234.94	247.73	278.66	309.24	279.94
전문서비스	220.27	223.54	221.49	170.43	135.76
운송창고	33.03	41.46	74.92	113.13	104.84
정보통신	30.88	32.39	46.81	49.42	47.16
부동산	46.49	46.56	45.21	46.31	44.82
숙박음식점	6.38	7.84	7.41	8.40	9.39
건설	8.09	6.56	6.02	6.00	5.45
기타	16.80	9.86	11.38	12.43	16.24

주: 연간 유입액 추이를 나타내는 flow가 아니라 특정 시점 기준으로 나타내는 stock 기준 측정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2025.9.)

□ 주요 경쟁국의 싱가포르 투자유입 동향

- 싱가포르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아세안 금융 허브 특성으로 케이만군도, 버진군도 등에서도 투자금이 지속 유입되고 있음
 - 2023년 기준, 미국의 싱가포르로의 직접투자 금액은 6,923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함
 - 그 다음으로 케이만군도(3,214억 싱가포르 달러), 버진군도(1,853억 싱가포르 달러), 일본(1,811억 싱가포르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14번째 외국인 직접투자(FDI) 국가(459억 싱가포르 달러)로 나타남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십억 싱가포르 달러)

구분(순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국(1)	427.18	530.49	605.63	566.89	692.31
케이만군도(2)	195.90	237.11	297.10	290.67	321.40
버진군도(3)	151.10	165.82	178.21	171.55	185.29
일본(4)	131.13	139.43	156.74	178.86	181.05
영국(5)	101.96	124.67	113.29	150.98	153.60
룩셈부르크(6)	110.92	61.90	85.65	114.50	128.17
한국(14)	24.17	26.58	36.52	47.64	45.88

주: 연간 유입액 추이를 나타내는 flow가 아니라 특정 시점 기준으로 나타내는 stock 기준 측정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2025.9. 기준)

□ 싱가포르의 對韓 투자 현황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누적 신고 금액 기준, 싱가포르는 한국에 4번째로 많이 투자중인 국가임
 - 2025년 2분기 말 누적 기준, 미국(1,152억 미국 달러), 일본(577억 미국 달러), 네덜란드(405억 미국 달러)에 이어 싱가포르는 약 359억 미국 달러의 한국으로 누적 투자금액을 기록함
 - 싱가포르의 뒤를 이어 중국이 누적 투자 신고액 277억 미국 달러로 5위를 기록

對韓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요국가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미국 달러)

국가(순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2Q.	전체누적
미국(1)	5,258.06	8,684.99	6,128.34	5,236.24	828.94	115,173.43
일본(2)	1,210.91	1,529.15	1,286.96	6,120.99	1,231.29	57,646.24
네덜란드(3)	974.41	4,922.48	1,101.69	883.15	126.89	40,049.94
싱가포르(4)	4,189.05	3,246.98	2,701.94	2,428.92	809.29	35,893.23
중국(5)	1,888.24	1,480.75	1,580.49	5,786.09	331.60	27,742.8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신고기준)

- 아세안 금융허브 특성에 따라 한국 자산운용사와의 협업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음
 - 기존에 상업용 빌딩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급증하는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맞춰 데이터 센터나 물류창고, 스타트업 등 투자 영역 확대 중

□ 한국의 싱가포르 진출 현황

- 한국 수출입은행 누적 투자 금액 기준, 싱가포르는 한국의 제8위 투자대상국임
 - 2025년 2분기 말 누적 기준, 한국은 싱가포르에 298억 미국 달러 누적 투자금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2,564억 미국 달러), 중국(974억 미국 달러) 등에 이은 8위 수준임
 - 아세안 지역 기준으로는 베트남(405억 미국 달러)에 이어 2위 투자대상국임

한국 주요진출 국가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미국 달러)

국가(순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2Q.	전체누적
미국(1)	27,929.55	29,817.17	28,823.39	22,411.55	10,107.25	256,354.65
중국(2)	67,53.81	8,537.81	1,889.82	1,930.23	728.48	97,352.31
케이만군도(3)	10,913.57	9,475.10	6,425.44	6,710.68	3,599.40	80,938.66
베트남(4)	25,15.76	2,855.77	2,662.88	2,762.80	1,162.34	40,465.42
룩셈부르크(5)	4,391.80	4,959.45	5,014.20	6,158.61	2,706.66	37,690.74
싱가포르(8)	2,513.61	3,064.68	1,275.03	2,720.60	1,048.17	29,830.1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투자금액 기준)

- 금융 허브 특성에 따라 금융보험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 등도 한국 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 중 하나임
 - 2025년 2분기 누적기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하여 88억 미국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그 뒤를 도·소매업(64억 미국 달러), 제조업(32억 미국 달러) 등이 잇고 있음
- 대기업 중심의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건설업의 비중이 컸으나, 최근에는 한류에 힘입어 서비스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한국의 산업별 對싱가포르 직접투자

(단위: 백만 미국 달러, 건)

분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2Q.		전체누적	
	투자 금액	법인 설립										
금융 및 보험업	568.97	18	577.13	17	414.22	28	1,561.01	31	684.26	19	8,766.51	237
도매 및 소매업	353.88	24	237.42	29	293.54	43	297.78	35	187.20	19	6,365.52	488
제조업	313.80	5	126.68	11	218.63	7	168.14	9	4.17	8	3,201.19	237
부동산업	262.53	2	345.38	6	74.08	0	187.20	2	31.33	2	2,783.82	57
정보통신업	454.66	36	129.27	59	102.10	58	97.21	33	35.29	21	1,773.68	408
운수 및 창고업	12.49	3	184.63	4	46.78	4	218.59	9	21.85	5	1,597.11	101
전문, 과학 및 기술업	342.64	17	609.03	28	46.27	16	34.57	26	29.50	21	1,582.68	242
광업	1.56	0	2.00	0	6.99	0	12.90	0	4.00	0	1,055.68	1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0.00	0	750.00	1	0.00	0	3.70	0	11.64	1	765.34	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17.14	0	11.64	0	32.16	0	3.16	0	0.22	0	662.34	17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	69.61	4	35.83	6	10.26	1	75.86	5	20.71	4	452.71	94
건설업	3.43	4	47.45	3	20.30	1	21.85	0	3.32	3	308.68	61
숙박 및 음식점업	3.83	1	3.01	1	3.34	3	34.83	4	2.55	3	307.09	59
농업, 임업 및 어업	0.00	0	2.93	0	1.75	2	0.00	0	5.14	0	111.82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0	0	0.00	0	4.02	1	1.54	3	6.78	3	36.47	19
교육 서비스업	0.98	2	2.12	2	0.28	1	2.06	1	0.12	2	33.85	2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09	0	0.07	1	0.00	0	0.00	0	0.00	0	22.48	5
협회 및 단체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	0	0.07	1	0.31	2	0.20	1	0.00	0	2.62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기타	0.00	0	0.00	0	0.00	0	0.00	0	0.08	1	0.55	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투자금액 기준)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프랜차이즈 A사, 동남아 진출 거점 싱가포르 첫 진출

- (성공사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사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싱가포르에 진출
- 무역관 지사화 사업 등 참여를 통해 시장 진출을 타진한 결과, 동남아시아 유력 CVC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해당 CVC의 프랜차이즈 라인업으로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 추진 중
- (시사점)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 마켓으로써의 싱가포르 진출수요 증가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정책 및 인센티브

- 우수한 기업환경, 친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 1965년 건국 이래 대외개방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속히 경제를 재개방하여 대응
 - 첨단제조업(Manufacturing 2030), 금융업 혁신(Industry Transformation Map)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
 - 싱가포르는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지수(Easy Doing Business)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기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싱가포르 개발청(EDB)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기업 아시아 지역본부의 46%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음
- 외국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투자 인센티브
 - 싱가포르의 투자 인센티브는 내국기업, 외국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며, 싱가포르 내에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지닌 기업에게 동일한 조세, 고용상의 혜택을 지원
 - (조세감면)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성장산업군 내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 고용창출, 싱가포르 내 사업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5년간 법인세를 면제 혹은 감면(5% 혹은 10% 적용)*
* 최대 15년간 적용, 싱가포르의 기본 법인세율은 17%
 - (고용지원)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급성장산업군(Fast-Growing Industries) 내 기업에 대해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 및 고용비자를 지원
 - (기타지원)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첨단 제조 산업군 내 기업에 대해 제조설비 관련 지출 일부를 훈급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생활) 높은 소득수준과 고물가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존재
 - 높은 국민소득, 협소한 국토로 인한 자원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개발 한계 등의 요인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을 가지고 있어 유지비용 부담 증가
- * 싱가포르는 Mercer사가 발표하는 2024 Cost of Living City Survey에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계비가 높은 도시로 선정(3위는 취리히, 서울은 32위)

- (노동법) 기본적으로 매우 유연한 구조이나,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 등 당면한 과제와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모니터링 필요
 - (외국인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3종류(EP, SP, WP) 비자 발급 대상자의 기준 급여수준 상향 등 신고요건 강화 추세
 - (저출산 대책) 2025년 4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에 대한 규정 대폭 강화
 - (업무방식 전환) 2024년 12월부터 '유연근무제 요청에 관한 삼자 협약 지침'에 따라 근로자는 수습 기간 이후 유연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절할 수 있으나 2개월 이내 답해야 하는 의무 발생

* Tripartite Guideline on Flexible Work Arrangement Requests

2025년 노동법 주요 참고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Employment Pass), WP(Work Permit), SP(S Pass) 비자 발급요건 강화 • EP : '26년부터 최소 월 급여 기준이 5,000 → 5,600 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조정, 나이 및 경력에 따라 최대 10,700 싱가포르 달러까지 적용 • WP : 특정 국적 근로자만 고용이 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이 기본 2년으로 제한 • SP : 2025년 9월부터 최소 월급여기준이 3,150 → 3,300 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 고용인의 SP, WP 비자 근로자 고용 부담금 지속 상향 예상
저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및 육아휴가 일수 확대 • 출산휴가(여성) : 2025년 4월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여성 근로자 대상으로 아이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경우 16주, 아닌 경우 12주(유급 8주+무급 4주) 부여 • 출산휴가(남성) : 아이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이며, 2024년 이후 출생한 경우 4주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속 확대 예정(2025년 4월부터 최대 6주 사용 가능) • 육아휴가 : 2025년 4월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으로 7세 이하 자녀를 둔 싱가포르 시민권자는 연 6일(2세 이하인 경우 추가 6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시민권자는 연 2일 육아휴가 사용 가능 • 출산 및 육아휴가 제도 개편 • 기존 공유 휴가제도(여성이 16주 출산휴가 중 4주를 남편과 나눠사용 가능)를 폐지하고, 부모가 서로의 필요에 맞춰 총 10주간의 유급 휴가를 배분하여 사용 가능 <p>* 2025년 4월 1일부터 6주, '26년 4월 1일부터 10주로 시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및 육아휴가 동안 법적 보호 • 출산휴가 동안 근로자는 해고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며, 출산 후 첫 4주 동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업무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장려 • 2024년 12월 1일부터 '유연근무제 요청에 관한 삼자 협약 지침'에 따라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는 서면으로 업무량에 대한 유연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검토한 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나 2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함

주: 보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싱가포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https://www.mom.gov.sg>)

자료: KOTRA 자체정리(KOTRA 해외시장뉴스 '싱가포르 노동 시장과 최신 노무 제도 변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필수 정보' 참고)

2. 유망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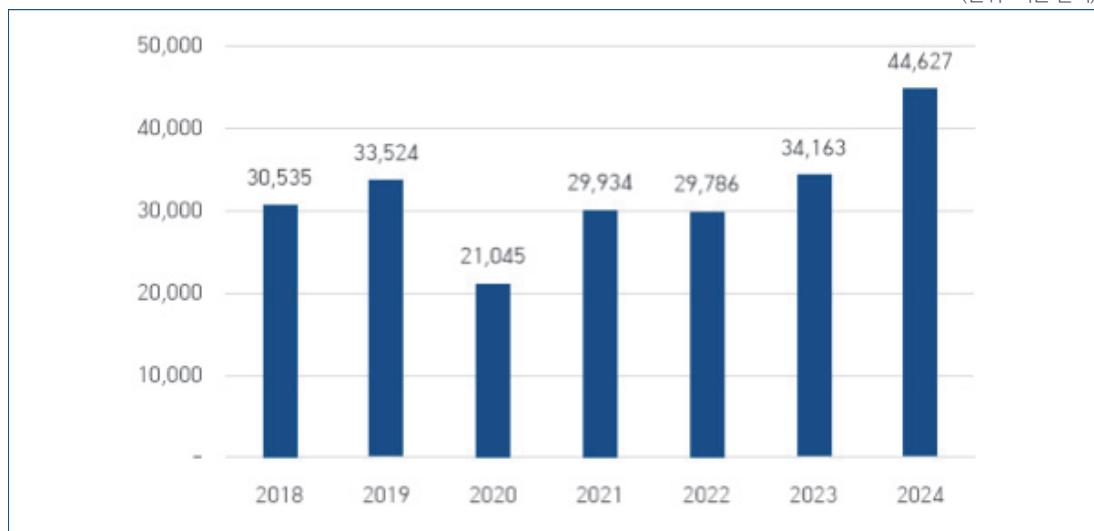
가. 건설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싱가포르 건설업은 2020년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2023년에 들어서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
 - 2024년 공공 및 민간 부문 건설 발주액은 총 446억 2,600만 싱가포르 달러로, 2023년(341억 6,300만 싱가포르 달러) 대비 30.6% 증가하였으며,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건설 부문 계약 총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2025.09.10.)

- 이 중 공공 부문 발주액은 248억 2,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의 약 55.6%를 차지하였고, 민간 부문은 198억 1,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44.4% 비중을 보임
- 세부적으로 건축공사가 374억 9,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주거용 153억 1,000만, 상업용 53억 9,000만, 산업용 49억 5,000만, 기타·기관용 118억 3,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구성됨
- 토목공사는 71억 4,000만 싱가포르 달러로 전체의 16% 수준

건설 부문 계약 내역 세부 현황

구분	총계	공공	민간	(단위: 억 달러)
전체	446.3	248.2	198.1	
거주(Residential)	374.9	185.3	189.6	
상업(Commercial)	153.1	73.0	80.1	
산업(Industrial)	53.9	2.9	51.0	
기관 및 기타(Institutional & Others)	49.5	3.2	46.3	
토목 공학(Civil Engineering Works)	118.3	106.1	12.3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2025.9.10.)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싱가포르 건설청(BCA) 건설업 등록 등급별 입찰 제한 및 주요 기업 현황
 - 싱가포르 건설청(BCA)은 건설업 관련 규제를 총괄하며, 정부 발주 공사에 입찰하려면 BCA 등록이 필수
 - BCA는 등록 기업을 7개 재무등급으로 분류하며, 분류 기준은 납입자본금, 순자산, 프로젝트 수행실적, 안전관리 수준 등을 포함
 - A1 등급 기업은 연간 1억 5,00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로, 공공 프로젝트 입찰금액에 제한이 없음
 - 2025년 9월 기준, A1 등급에 속한 주요 기업으로는 대우건설(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삼성물산(Samsung C&T Corporation), 쌍용건설(Ssangyong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Expand Construction Pte Ltd, 가시마(鹿島) 건설(Kajima Overseas Asia(Singapore) Pte. Ltd.) 등이 있음

BCA 등급 및 입찰 한도(25년 6월~26년 6월 기준)

BCA 등급	입찰 한도	기업 수	(단위: 백만 달러)
전체	-	1968	
A1	무제한	90	
A2	105	31	
B1	50	74	
B2	16	84	
C1	5	285	
C2	1.6	117	
C3	0.8	1287	

자료: 싱가포르 건설청 자료 토대로 무역관 작성(2025.9.10.)

- 대형 건설·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및 수주 현황

- 창이공항 제5터미널(2025년 착공~2030년대 중반 완공 예정), 마리나베이샌즈(IR) 확장 (2025~2029년), 공공주택 개발 및 재개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건설수요가 뒷받침될 전망
- 톰슨-이스트코스트 라인 연장(2026~2030년대 중반) 및 크로스아일랜드 라인(2025~2032년) 등 MRT 노선 개발을 위한 기계·전기(M&E) 공사계약도 발주 예정
- 중기적으로는 T5, 공공주택 공급 파이프라인, 크로스아일랜드 라인(3단계), 다운타운 라인 선가이카덧 연장, 통합 폐기물 관리시설(2단계), 텅아 종합·지역 병원, 시글립 사우스 통합개발, 우드랜즈 노스코스트 산업단지, 주니어 칼리지 재개발, 상업용 건물 재개발, 기타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수요를 뒷받침할 전망
- 일부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미 발주·낙찰이 이루어져 주요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

싱가포르 주요 대규모 건설·인프라 사업 수주 현황

(단위: 싱가포르 달러)

사업명	낙찰 금액	낙찰 업체	내용
창이공항 터미널 5 메인 구조물 및 지하공사	38억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Singapore) – Obayashi Singapore JV	메인 터미널, 교통센터의 기반·지하층, 터미널2 연결 터널 구간 시공
창이공항 터미널 5 에어사이드 인프라	9.5억	Hwa Seng Builder	원격 주기장/유도로, 전력 부속시설, 조명센터 등
창이공항 터미널 5 터널패키지	9.99억	Penta-Ocean Construction – Koh Brothers JV	T5 내 터미널 지하터널 시공, 유틸리티 관통로 포함
NS 스퀘어 (마리나베이 부유무대)	비공개	Expand Construction Pte Ltd	대규모 공공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상징적 공원 및 수변무대
공공주택 (일부 BTO/재개발)	사업별 상이 (대다수 수천만~ 수억 싱가포르 달러)	HDB 발주/민간 시공사 개별 선정	신규 BTO단지 및 구도심 재개발, 세부 시공사는 사업별 상이

자료: Changi Airport Group,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Penta-Ocean 공식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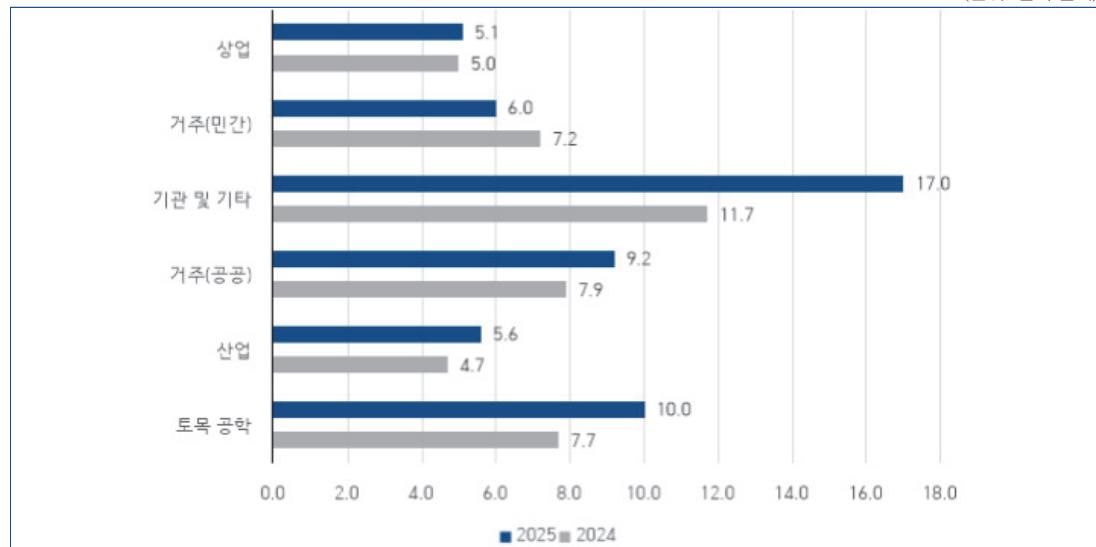
- 싱가포르 건설수요 기반 확대 요인

- 공공주택 건설수요 증가 : 현지 언론 The Straits Times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만 5,000세대의 BTO 주택이 공급될 예정임. 이에 따라 2024년 79억 싱가포르 달러였던 건설수요는 2025년 92억 싱가포르 달러로 증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상업용 건설수요 : 2024년 상업용 건설수요는 전년 대비 47% 급증하였으며, 2025년에는 36~51억 싱가포르 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마리나베이샌즈(IR)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 진행으로 중기적으로는 수요가 유지 또는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산업용 건설수요 : 데이터센터, 반도체 및 제조시설 신규 투자로 인해 산업용 건설 부문 역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임. 특히 글로벌 IT 기업의 데이터센터 증설 계획과 싱가포르 정부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이 수요를 뒷받침함
- 공공기관 및 기타 투자 : 민간 및 공공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전망임.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향후 5년간 10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해 창이공항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예산안에서 50억 싱가포르 달러의 창이공항 개발기금 추가 출자가 발표됨

2024 및 2025년도 싱가포르 건설업 수요

(단위: 싱가포르 달러)



자료: Surbana Jurong 2025 Market Review and Outlook

• 향후 전망

- 최근 몇 년간의 계약발주 실적과 2025년 건설수요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건설 명목 생산액은 약 384억 싱가포르 달러(2024년 잠정치)에서 390~420억 싱가포르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상승세는 지난 몇 년간의 실제 건설수요 증가와 2025년 추가 수요 확대에 힘입을 것으로 전망
- 실질 기준으로는 2025년 총 건설 생산액이 300~320억 싱가포르 달러로, 2019년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중기적으로 BCA는 2026~2029년 연평균 건설수요가 390~460억 싱가포르 달러 범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

나. 바이오메디컬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싱가포르의 바이오메디컬 산업(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부문)은 2023년 기준 GDP의 2.6%를 차지
 - 세계 주요 바이오메디컬 기업 80여 개 이상이 싱가포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Medtronic, Becton Dickinson, ThermoFisher 등이 있음
 - 2023년 기준 약 38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됨
 - 2003년 이후 A*STAR이 확보한 신약 개발 관련 특허는 총 712건이며, 이 중 463건이 현재 유효
 - 연구 인력 규모도 확대되어, 연구원 및 엔지니어 수는 1990년 약 4,000명에서 2018년 기준 3만 6,000명 이상으로 증가
 - 2024년 한해에만 싱가포르는 135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고정자산투자(Fixed Asset Investment) 유치를 확보했으며, 이 중 111억 달러가 산업 개발에 투입되었고 바이오메디컬 부문이 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함. 현재 바이오제약 활동은 연간 20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생산을 창출 하며, 싱가포르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바이오파리스(Biopolis)와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Tuas Biomedical Park)와 같은 클러스터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형 인프라를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모두에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의 RIE(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마스터플랜을 통한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 RIE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싱가포르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
 - RIE2020, RIE2025는 4대 중점 분야로 구성됨 : 첨단 제조·공학(Advanced Manufacturing & Engineering, AME), 보건·바이오메디컬 과학(Health & Biomedical Sciences, HBMS), 도시 솔루션·지속가능성(Urban Solutions & Sustainability, USS), 서비스·디지털 경제(Services & Digital Economy, SDE)
 - 전체 예산 중 상당 비중이 보건·바이오메디컬 과학에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가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보여줌

RIE 주요 계획 및 성과

계획	기간	예산	중점 분야	주요 성과 / 영향
RIE2015	2011~2015년	161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제조·공학 보건·바이오메디컬 과학 도시 솔루션(에너지, 물, 환경) 디지털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젠, 애브비, MSD 바이오로직스 생산시설 유치 CREATE 캠퍼스 설립(MIT, ETH, 상하이 교통대 참여) 초기 벤처투자로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바이오·공학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RIE2020	2016~2020년	190억 (약 40억 HBMS에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제조·공학(AME) 보건·바이오메디컬 과학 (HBMS) 도시 솔루션·지속가능성 (USS) 서비스·디지털 경제(S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GInnovate(2016) 출범,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 메드테크(진단·웨어러블) 클러스터 성장 스마트네이션 초기 추진 : AI, 핀테크, 자율주행차 바이오메디컬 수출액 두 배 성장 (~300억 달러, 2020년 기준) 싱가포르 아시아 혁신 하브 1위로 평가
RIE2025	2021~2025년	2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4대 분야 유지, 중점 강화 :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보건 회복력 횡단적 과제 : 기업 혁신, 인력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oNTech mRNA 제조시설 싱가포르 유치 AI 로봇 산업 4.0 대규모 추진 녹생경제 중점 : 수소, 탄소포집, 재생 에너지 현재 진행중 : 코로나후 시대 경쟁력 강화

자료: 싱가포르 국가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 최근 수출입 동향

- 싱가포르 바이오메디컬 제품의 수입은 최근 몇 년간 변동을 거듭하며 성장세를 이어왔음
- 2018년 46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2022년 79억 싱가포르 달러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글로벌 수요 조정으로 -13.5% 감소한 68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함. 그러나 2024년에는 27.8% 증가한 88억 싱가포르 달러로 반등, 사상 최고 수준을 간신히. 2025년 1~7월 누적 수입액은 46억 싱가포르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 수출은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오며 2018년 130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2023년 174억 싱가포르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2.6% 성장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다만 2024년에는 -21.5% 감소한 137억 싱가포르 달러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음. 2025년 1~7월 누적 수출액은 74억 싱가포르 달러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고기저효과로 인해 다소 둔화된 상황임

2026 싱가포르 진출전략

- 전반적으로 최근 수출입의 변동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급격한 수요 증가 이후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허브로서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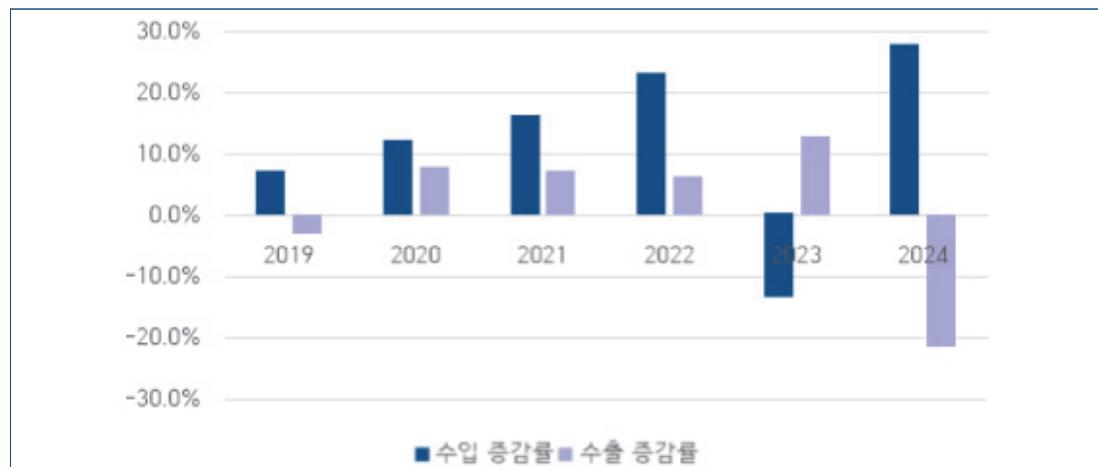
싱가포르 바이오메디컬업 수출입

(단위: 백만 싱가포르 달러)

년도	수입	수출
2018년	4.6	13.0
2019년	5.0	12.6
2020년	5.6	13.6
2021년	6.4	14.6
2022년	7.9	15.5
2023년	6.9	17.4
2024년	8.8	13.7
2025년 7월 누계	4.6	7.5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2025.09.12. 기준)

〈싱가포르 바이오메디컬업 수출입 증감률〉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2025.9.12. 기준)

□ 현지 주요기업 및 최근 동향

- 싱가포르 바이오메디컬 분야 주요기업 진출 및 확장 현황
 - 싱가포르 내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수는 2012년 10개 미만에서 2023년 65개로 증가했으며, 2022~2032년 사이에는 60% 이상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바이오테크 기업 수는 2015년 약 10여 개에서 2025년 60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활발한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 정부는 RIE2025 계획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R&D에 10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을 투입하였으며,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를 위한 8,00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전용 이니셔티브도 별도로 추진 중임. 이 과정에서 유전체학·맞춤형 의학 분야가 주요 연구개발 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학계·산업계 간 활발한 협력 체계가 마련됨
 - 싱가포르 바이오제약 생태계는 GSK, Pfizer, Roche 등 글로벌 기업의 오랜 현지 운영과 2024년 AstraZeneca의 대규모 투자로 더욱 강화되고 있음. 동시에 MiRXES와 같은 로컬 기업은 RNA 기반 진단 및 조기 암 진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
 - 연구기관 A*STAR와 산하 상용화 조직 Accelerate는 초기 연구성과를 실용화 단계로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다국적 제약사 간의 혁신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싱가포르 바이오제약 산업 종사자 수는 2015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여 현재 2만 5,000명을 상회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확대와 정부 주도의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힘입은 것임

싱가포르 바이오메디컬 산업 주요 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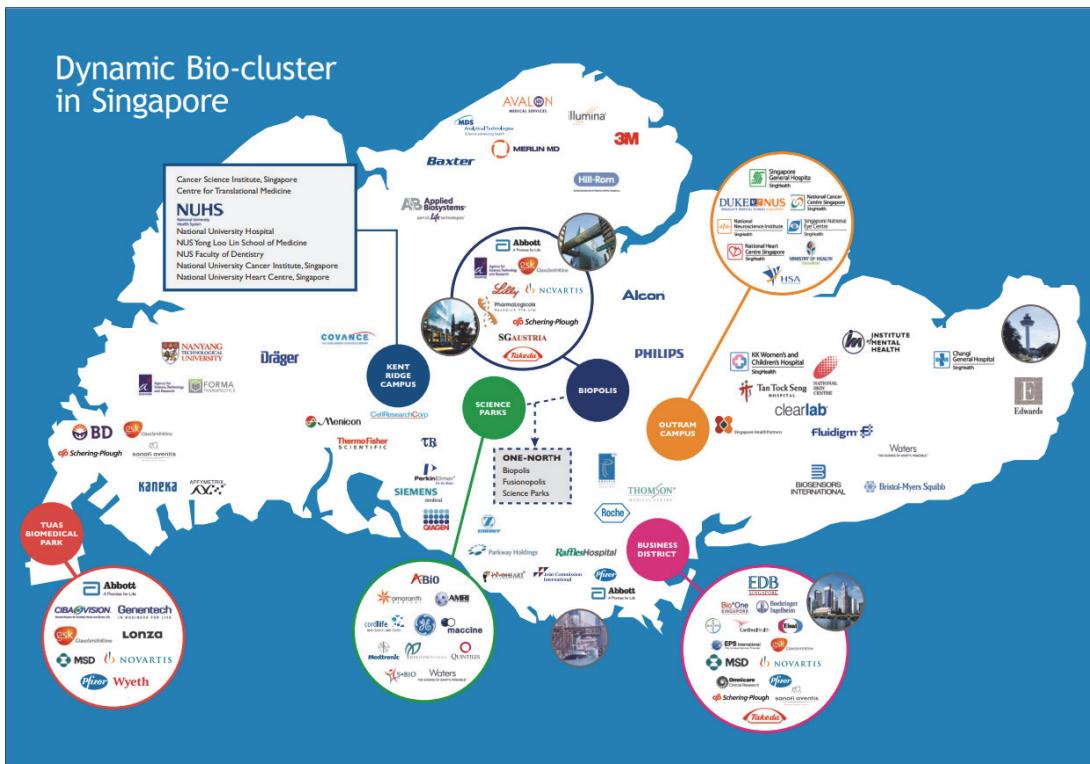
기업명	투자 금액	시설/투자명	주요 목적·특징	발표·착공·완공 연도
Pfizer	10억 싱가포르 달러	투아스 API 제조시설(확장)	고도 자동화 확장, 종양·진통 제·항생제 API 생산 강화, 250명 이상 신규 고용	2020년(착공), 2024년(완공·가동)
WuXi AppTec	비공개	투아스 R&D 및 제조시설(신규)	7개 플랜트 통합, API 및 복합 컨주게이트 연구·제조, 지속가능성 강조	2025년(착공), 2027년(완공 예정)
WuXi Biologics	14억 미국 달러	투아스 CRDMO 시설(신규)	아시아 내 대규모 CRDMO, 첨단 바이올로직스 연구· 제조 강화	2024년(착공)
AstraZeneca	15~19억 미국 달러	항체-약물 접합체 (ADC) 시설(신규)	싱가포르 최초 ADC 전주기 생산시설, 800명 이상 신규 고용, 종양학 파이프라인 지원	2024년(발표), 2029년(완공 목표)
AbbVie	2억 2,300만 미국 달러	투아스 바이올로직스 제조시설(확장)	면역·종양학 의약품 생산 용량 24,000L 확대, 글로벌 수요 대응	2024년(발표)
GSK	3억 4,300만 싱가포르 달러	투아스 백신 제조시설(확장)	백신 생산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첨단 디지털 제조 도입	2023년(발표)
Novartis	2억 5,600만 미국 달러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확장)	자동화 업그레이드, 항체 생산 확대, 아시아·글로벌 공급 지원	2023~2024년 (발표·건설 진행)
BioNTech	비공개	mRNA 제조시설 및 지역본부(신규)	아시아·태평양 최초 mRNA 생산시설, 신속 팬데믹 대응, 암·감염질환 집중	2023~2024년(가동)
Sanofi	비공개	글로벌 백신 생산시설(신규)	네트워크 내 최첨단, 대규모 단일사용기술 적용, 국제시장 대상 백신 생산	2023년 기준 가동 중

자료: EDB, JTC, The Business Times, Novartis 홈페이지, AbbVie 홈페이지

□ 혁신 바이오메디컬 생태계가 제공하는 기업 진출 기회

- 의료 클러스터 기반의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 싱가포르 Biopolis는 기초 실험기구부터 첨단 분석장비까지 공유 연구시설·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연구기관이 초기투자 부담 없이 신속히 현지 연구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공초점 현미경, 질량분석기, 단백질체학 맞춤 분석 장비, SPF(무균 동물) 시설 등 세계적 수준의 장비 활용이 가능해, 기업이 임상 전 단계 검증, 글로벌 파트너 공동연구, 기술 상용화 실험 등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함
-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업 친화 환경
 - 싱가포르는 세계경제포럼(WEF)·IMD 기준 2009년 세계 2위 수준의 IP 보호 환경을 기록, 연구성과의 상업화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안정성을 보장함
 - 스타트업 및 ‘바이오 프리뉴어(bio-preneur)’에게 보조금·연구자금 지원과 글로벌·지역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여, 혁신 아이디어를 신속히 사업화하고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기 유리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
- 글로벌 진출에 유리한 제조·생산 역량
 - 기업은 24~36개월 내 제조 플랜트를 설립·검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급 인력·세계적 인프라·신뢰성 높은 지원 서비스에 기반함
 - 규제기관의 우수한 실적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물류 연결성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의 신속한 수출·유통이 가능함
 - 의약품실사협력체계(PIC/S) 가입 및 호주 TGA와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등 국제적 규제 준수 이력을 보유하여, 의약품 생산 및 수출 시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성장하는 산업 규모와 전문 인력 풀
 - 바이오메디컬 제조업은 2008년 생산액 190억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 2000년 이후 연평균 13.2% 성장하며 안정적인 산업 성장세를 보임
 - 2008년 기준 1만 2,450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화학·전자 등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약 35만 명의 숙련 인력 풀을 활용 가능함
 - 싱가포르국립대(NUS)와 협력해 SAGE(Singapore Academy for GxP Excellence)를 설립, 글로벌 기준 교육 및 신규 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함 → 기업이 전문 인력확보와 역량 강화에 유리한 환경 제공

〈싱가포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지역별 분포〉



자료: EDB

□ 기타(향후 전망, 기회요인 등)

- 정밀의학·AI 신약개발 중심의 성장 경로
 - 싱가포르는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연구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음. 특히 국가 정밀의학 프로그램(National Precision Medicine Programme)을 통해 45만 명에 달하는 다양한 인종적 배경의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환자의 발병 위험 예측, 조기 진단,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등 선제적·예방적 의료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심층적 통찰을 축적하고자 함
 - 현지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핵산 치료제(nucleic acid therapeutics), 세포치료제(cell therapies), 유전자 편집 기반 치료제 등 차세대 치료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분야는 아직 글로벌 경쟁자가 제한적인 틈새시장으로, 싱가포르가 기술력과 임상 인프라를 바탕으로 비교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큼
 -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R&D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싱가포르 바이오제약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정부는 민관 공동연구 프로젝트 확대, 임상시험 환경 고도화, 신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산업역량과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

- 나아가 글로벌 생명과학 산업이 맞춤형 의학과 AI 기반 신약개발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연구·임상시험 거점이자 혁신 허브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제약사와 연구기관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할 전망

다. 자동차산업

□ 개요

- 현지 시장 특징
 - 싱가포르 자동차 시장 규모가 제한적임. 국토가 협소하고 차량 등록제(COE, Certificate of Entitlement) 제도로 인해 자동차 보유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 자동차 등록증(COE) : 10년 유효, 매달 경매 방식으로 발급.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며 차량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침
 - 싱가포르의 차량 가격은 기본 차량 가격에 더해 COE(차량 등록증), 추가 등록세(ARF),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 한국, 유럽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2~3배 수준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
 - 전기차(EV) 보급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며, 같은 시점까지 전국에 60,000기의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EV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 중
- 현지 산업 트렌드
 - 싱가포르 정부는 EV Early Adoption Incentive(EEAI), Vehicular Emissions Scheme(VES)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승용차 시장에서는 일본 브랜드(토요타, 혼다, 마쓰다 등)가 꾸준히 상위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독일 브랜드(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역시 고급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임. 한국 브랜드 (현대, 기아)는 버스, 택시 등 상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승용차 부문에서도 점차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 차량 가격이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편이어서 중고차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현지 자동차 시장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음
- 최근 수출입 동향
 - 2022~2024년 동안 내연기관차 등록은 지속 감소한 반면, 친환경차 등록은 크게 증가함
 - 하이브리드 차량은 2년간 50% 이상 성장하며 안정적인 주요 선택지로 자리잡음
 - 전기차는 같은 기간 4배 이상 급증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전체 시장 구조가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남.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VES, EEAI)와 충전 인프라 확충, 그리고 소비자 수용성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됨

연료 유형별 전체 차량 대수

(단위: 대)

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내연기관차	579,285	560,990	532,986
하이브리드	67,110	80,760	101,014
전기차	6,569	12,018	26,339

자료: LTA

- 차량 배출 규제 및 전기차 인센티브

- 차량 배출 제도(VES)는 차량과 택시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8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강화된 형태(Enhanced VES)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임. 제도는 2027년부터 종료될 예정
- 평가 기준은 이산화탄소(CO₂),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 5대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며, 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오염물질에 따라 차량 등급과 리베이트 또는 부담금 수준이 결정
-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출가스가 직접적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을 0.4g CO₂/Wh의 환산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함
- 전기차 조기 보급 인센티브(EEAI)는 2021~2025년 기간 내 신규 또는 수입 중고 전기차 등록 시 추가 등록세(ARF)의 최대 45%를 리베이트로 환급해주는 제도. 리베이트 한도는 2021~2023년 최대 2만 SGD, 2024~2025년에는 최대 1만 5,000SGD임
- 종합적으로 VES와 EEAI를 동시에 적용받을 경우,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4만 SGD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적 지원 효과로 친환경차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1~8월 기준 신규등록 차량·택시의 약 80%가 친환경차였음. 이 중 절반가량은 전기차(EV)로,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현지 주요기업 및 최근 동향

- 중국 EV가 주도하는 싱가포르 시장, 성장세 속 한국 기업 기회 모색
 - 2025년 상반기 싱가포르 신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EV) 브랜드 BYD가 4,667대 등록(점유율 19.5%)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토요타(렉서스 포함)는 3,461대로 2위를 기록
 - 같은 기간 신차등록 대수는 총 23,957대로, 2024년 동기(18,576대) 대비 29% 증가하였음. 시장 확대의 배경에는 EV에 특화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본격 진입이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이후 새롭게 진출한 Deepal, Dongfeng 등을 포함해 2025년 상반기 신차등록 브랜드 수는 53개로 전년 동기(48개) 대비 증가

- 중국 EV 브랜드의 약진 속에 Aion(466대, 11위), Xpeng(376대, 12위) 등 신흥 브랜드도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 중
- 반면, 병행수입차(Parallel-imported cars) 비중은 지속 감소. 2025년 상반기 전체 등록의 10.9%에 불과해, 2024년 동기(12.8%) 및 2023년(21.4%) 대비 하락세. 이는 EV 모델의 상당수가 싱가포르 충전 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병행수입이 어려운 점도 원인으로 지적됨
- BYD 등 중국 EV 브랜드는 최대 4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정부 인센티브(VES·EEAI)를 활용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음.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내 중국 브랜드가 싱가포르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고급차 시장에서 여전히 독일 및 일본 브랜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상업용 차량 및 대중교통 부문에서는 한국 기업(현대·기아)이 점차 입지를 확대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의 전기버스 도입확대정책, 친환경택시 보급확대 등과 맞물려 한국 기업들은 EV 버스, 친환경 상용차, 충전 인프라 연계 솔루션 분야에서 유망한 진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2024~2025년 상반기 신규 등록 차량

(단위: 대)

브랜드(국가)	2025년 상반기 등록 대수	2025년 상반기 시장 점유율	2024년 상반기 등록 대수	2024년 순위	2024년 상반기 시장 점유율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비야디(중국)	4,667	19.5%	2,587	2	13.9%	▲5.6
토요타(일본)	3,461	14.4%	3,165	1	17%	▼2.6
비엠더블유(독일)	2,664	11.1%	2,523	3	13.6%	▼2.5
메르세데스-벤츠(독일)	2,537	10.6%	2,463	4	13.3%	▼2.7
혼다(일본)	2,268	9.5%	1,507	5	8.1%	▲1.4
테슬라(미국)	1,419	5.9%	969	6	5.2%	▲0.7
현대(한국)	745	3.1%	941	7	5.1%	▼2
기아(한국)	633	2.6%	759	8	4.1%	▼1.5
닛산(일본)	602	2.5%	616	9	3.3%	▼0.8
마쓰다(일본)	584	2.4%	574	10	3.1%	▼0.7

자료: The Straits Times, LTA

- 친환경차 확대에 따른 한국 부품·ICT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
 - 싱가포르 내 한국산 차량은 2024년 기준 59,010대로, 전년 대비 3.7% 감소하며 감소세를 보였음
 - 이는 단순히 완성차 판매 부진으로만 해석되기도보다는, 시장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따른 변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싱가포르 내 국내산 자동차 대수

(단위: 대)

2022년	2023년	2024년
60,487	61,291	59,010

자료: LTA

-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등록을 전면 금지하고, 2030년까지 60,000기의 EV 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는 등 친환경 교통전환을 강력하게 추진 중임. 이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배터리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경량화 소재, 전력 변환장치 등 다양한 부품·연계 산업에서 신규 수요가 창출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 자동차 시장은 차량 가격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전환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높아 빠른 속도로 EV·하이브리드 채택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완성차 자체보다는 EV 생태계와 연계된 부품, 충전 인프라, 차량용 ICT 솔루션 등에서 협력 기회가 더욱 커지고 있음
- 한국 기업의 경우, 전기·수소차 부품 기술력, 배터리 및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경쟁력, 차량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싱가포르 현지 기업·정부 프로젝트와의 협업 가능성이 큼. 또한 전기버스, 친환경택시 등 공공 교통수단 전환 정책과 맞물려, 대중교통용 충전 인프라, 차량용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분야에서도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더불어, 싱가포르의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 전략에 따라 차량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교통관리, V2G(Vehicle-to-Grid) 기술, 스마트시티 연계형 모빌리티 서비스 등 자동차-IT 융합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협력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Singapore Green Plan)과 향후 자동차 산업 변화
 -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공공·민간 부문에 EV 충전기 60,000기를 설치하는 한편, 같은 해부터는 모든 신규 차량과 택시 등록을 친환경 에너지 모델(cleaner-energy models)로 전환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는 전체 차량을 청정에너지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할 방침임
 - 정부는 전기차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임. 예컨대, 상업지구, 타운센터, 근린센터 및 HDB 소유 주차장 등 공공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고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약 60여 개의 HDB 주차장에 고속충전기 120기를 설치한다는 발표도 있음
 - 이러한 정책과 인프라 확대 움직임은 싱가포르의 자동차 시장 구조가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및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 보조금·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와 소비자 인식 변화도 시장 확대의 주요 동인임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KSDPA(한-싱 디지털 동반자 협정) 발효 및 DEPA(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통한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 협력 확장

- 한국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 싱가포르에게는 네 번째 디지털 경제 협정이자 아시아 국가와의 첫 체결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중소기업 지원, 디지털 인증·전자서명 상호인정 등을 포함
 - 다자간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EPA)과 연계되어 글로벌 확산 잠재력 보유
 - KSDPA 이행을 위한 한-싱 디지털 경제 대화 신설하여 '23년 제1차, '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데이터 이동·전자서명 상호인정,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협력, DEPA 연계 및 아세안 공동 프로젝트 등 논의

KSDPA, DEPA 주요 내용

구분	KSDPA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DEPA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 시기	• 2021년 12월(발효 : 2023년)	• 2020년 6월(최초 체결)
참여국	• 한국, 싱가포르(양자 협정)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 개방형 구조로 추가 가입 가능(한국은 2023년 정식 가입)
협정 성격	• 한국의 최초 디지털 통상 협정 • 싱가포르의 아시아 첫 디지털 협정	• 세계 최초의 개방형 다자 협정(주가로 원하는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함
주요 목표	• 양국 간 디지털 무역 확대, 데이터 자유화, 디지털 신뢰 확보, 중소기업 지원	•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범 확산, 참여국 간 상호 유통성 제고, 다자 규범 선도
핵심 내용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 전자서명·전자송장 상호인정 • 개인정보·사이버보안 협력 • AI, 펍테크, 클라우드 협력 기반 마련	• 데이터 이동 및 디지털 신뢰성 확보 • 디지털 정체성·전자서명 국제 표준화 • 펍테크, AI, 디지털 헬스케어, 콘텐츠 협력 촉진 • 중소기업 글로벌 플랫폼 접근성 확대
한국에의 의미	• 아세안 시장 진출 시 데이터 현지화 규제 완화 및 디지털 인증 활용 가능	•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 신흥국·선진국과 동시 협력 가능

자료: MTI, 싱가포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시사점 및 활용 방안
 - KSDPA를 통해 아세안 시장 진출 시 데이터 현지화 규제 완화, 전자계약·전자송장 등 디지털 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온라인 유통·결제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교역장벽 완화 혜택을 활용 가능
 - AI 기반 서비스, 핀테크 솔루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K-콘텐츠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 및 진출 기회 확대
 - 싱가포르의 글로벌 디지털 허브 및 테스트베드 기능을 활용하여, 현지 시범 사업을 통해 기술·서비스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유리
 - 지속적인 민관 협력과 DEPA 등 다자협정 참여 확대를 통해, 한국은 국제 디지털 무역 규범 형성 과정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자국 기업의 글로벌 표준 조기 적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프로젝트

□ 싱가포르 내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 분야

- EV 인프라 구축 및 충전 기술 협력 프로젝트
 -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전국에 EV 충전기 60,000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단계적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실제로 2024년에는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속 충전기 설치 입찰(EVE Awards 2차)이 진행된 바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민간기업 참여가 지속 확대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 한국 기업은 고속·초고속 충전기 공급, 충전 인프라 운영·관리 플랫폼, 전력망 연계형 V2G (Vehicle-to-Grid)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특히 싱가포르는 전력 수요 관리·그리드 안정성을 EV 인프라 확충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음
- 스마트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협력
 - 싱가포르는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실증 중임. 대표적으로 CETRAN(자율 주행차 시험센터, one-north), NTU의 COSMO Testbed 등에서 자율주행, V2X 통신, AI 기반 교통제어 관련 실증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음
 - 한국 기업은 자율주행 센서(LiDAR, 레이더 등) 및 인식 소프트웨어, V2X 통신 솔루션, 교통데이터 분석 및 관리 플랫폼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큼
 - 싱가포르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범노선 운영(자율주행 버스, 로보택시), 스마트 물류 로봇 등 다양한 테스트베드 참여가 가능할 전망임

- 공동 R&D 및 실증(테스트베드) 프로젝트

-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신기술 테스트베드 국가로, ASTAR, NRF, JTC 등 정부 산하기관이 글로벌 기업과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 예컨대, ASTAR와 Siemens는 지속가능 제조(sustainable manufacturing)와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최적화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 중임
- 또한 ASTAR가 주도하는 SITEM(Singapore Integrated Transport Energy Model)은 전기차 충전 수요·에너지 사용량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전력 관리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음
- 바이오·헬스케어 부문에서도 싱가포르는 National Precision Medicine Programme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 연구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 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정밀의학 연구 참여 기회도 존재함

다. 공급망(자원개발)

□ 전략적 공급망(에너지·식량·물류) 협력 분야

-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허브로서의 협력 기회

- 싱가포르는 석유 정제·석유화학 클러스터(주롱 아일랜드)를 기반으로 아시아 최대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수소·탄소저감(CCUS) 분야로 공급망을 다변화 하고 있음
-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탄소 수소 도입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약 30%를 해외 재생에너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전력망 연계 등)로 조달할 계획임
- 한국 기업은 수소 생산·저장·운송 기술, ESS(에너지저장장치), 탄소저감 기술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식량·농식품 공급망 협력

- 싱가포르는 식량 자급률이 10% 내외에 불과해, 2030년까지 '30 by 30'(식량 자급률 30%) 목표를 추진 중임. 이를 위해 스마트팜, 대체식품, 식품가공·저장 유통기술 확보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 한국 기업은 스마트팜 솔루션, 식품안전·가공기술, 저온유통(Cold Chain) 시스템에서 협력 가능성이 큼
- 특히 한-싱가포르 FTA 및 디지털파트너십 협정(DPA)을 활용하면, 단순 농식품 수출을 넘어 디지털 기반 식품 공급망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음. 블록체인 기반 식품 이력추적 시스템, 콜드체인 관리 플랫폼 등을 통해 한국산 농식품의 신뢰성·투명성을 보장 가능
- 또한, 싱가포르가 투자확대 중인 대체 단백질(plant-based, cultured meat) 및 K-푸드 가공 분야에 한국 기업이 R&D 협력이나 공동 생산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 생산·가공 거점화 가능성도 열려 있음

- 디지털·물류 공급망 강화 프로젝트

- 싱가포르는 세계 2위 컨테이너 항만(PSA Singapore)을 기반으로 아세안 공급망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
- PSA는 Tuas Mega Port(2040년 완공 목표)를 통해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전환 중이며, 이는 아시아 물류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예정임
- 한국 기업은 스마트 물류·자동화 솔루션, IoT 기반 화물 추적 시스템, 사이버보안·데이터관리 솔루션 등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음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64 |
| 2. 진출전략 | 66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스마트 네이션 전략을 통해 건설·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그린 빌딩 마스터플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건축·에너지 분야의 규제 및 인센티브 강화
- EV 전환 로드맵(2030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중단, 2040 전량 전환) 등 교통·에너지 정책 추진
- 다수의 FTA(CPTPP, RCEP)와 디지털경제협정(DEPA, KSDPA) 체결로 역내 교역·전자상거래 제도적 기반 확보



경제(Economic)

-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세계적인 금융·물류 허브로서 높은 개방도 유지
-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MRT 확장, 창이공항 T5, 신도시 개발 등) 지속으로 건설·자재 수요 확대
- EV·바이오·디지털 산업육성에 따른 관련 투자 증가
- 생활 수준 향상과 소득증가로 프리미엄 소비재·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사회문화(Social)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확대
- 다민족 사회 특성으로 소비 패턴이 다양하며, K-푸드·K-뷰티·K-콘텐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음
- 웰빙·ESG 가치 확산에 따라 친환경 제품·건강식품·스포츠·피트니스 용품 소비 증가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확대와 전자상거래·구독 서비스 확산으로 새로운 소비문화 정착



기술(Technological)

- BIM, 디지털 트윈, IoT 센서 등 스마트 건설 기술과 모듈러 공법 도입이 활발
- EV 충전 인프라,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5G·V2X·센서) 등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실증이 진행 중
-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서 AI 진단,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 솔루션 등 신기술 도입 가속화
- 전자상거래, 핀테크, 디지털 물류 등 디지털 무역 관련 기술의 상용화와 혁신이 빠르게 진전됨

SWOT 분석

강점(Strength)



- 내부 환경 :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강점
- 한국 기업은 스마트 건설기술, 친환경 자재, EV 배터리, ICT 융합기술, 의료기기·바이오, K-소비재·콘텐츠 등 글로벌 경쟁력 있는 분야를 보유
- ICT 인프라·디지털 전환 경험과 K-브랜드 이미지(한류, K-뷰티·푸드 등)가 현지 시장 수요와 부합

약점(Weakness)



- 내부 환경 :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약점
-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현지 유통·규제 정보 부족 및 인증절차 이해 미흡
- 글로벌 경쟁 대비 브랜드 인지도·레퍼런스 부족과 가격 경쟁력 열세
- 현지 파트너십·네트워크 한계로 대형 프로젝트 참여 장벽 존재

기회(Opportunity)



- 외부 환경 :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만한 요인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EV 전환 정책, Healthier SG, 스마트 네이션, 디지털 무역 협정(DEPA·KSDPA) 등 정책적 지원 확대
- 고령화·디지털화·웰빙 트렌드로 헬스케어·친환경·디지털 서비스·소비재 시장이 성장
- 싱가포르가 아세안·인도·중동 교역 허브로 기능, 역내 확산 교두보 역할 가능

위협(Threat)



- 외부 환경 : 해당 지역에서 우리 기업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인
- 독일·일본의 브랜드 장악, 중국의 가격 경쟁 심화, 인접국 저자재 공급으로 가격 경쟁 심화
- 규제 강화, 인증 품질 기준 상향으로 진입장벽 존재
- 가격 경쟁 심화와 경기 변동, 공급망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싱가포르의 그린 빌딩 마스터플랜 및 스마트 네이션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건축 자재, 스마트 빌딩 관리 기술, 모듈러 공법을 중심으로 진출 기회 확대
- 신규 주택·공공 인프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리노베이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안전 관리 솔루션 수출 가능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EV 전환 정책과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에 맞춰 배터리, 충전 솔루션, 전력망 연계 기술의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
- 자율주행 실증사업과 연계해 센서, 통신 모듈, 관제 플랫폼 등 한국 기업의 강점 분야 진출

스마트 모빌리티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활용해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후보, 임상 협력 진출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맞춰 AI 기반 진단, 원격의료,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등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 확대

의료·바이오 R&D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허브 기능을 활용해 K-뷰티·푸드·헬스케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 확대 가능
- K-콘텐츠(OTT, 게임, 머천다이즈)와 연계한 크로스보더 유통 및 스마트 물류·친환경 패키징 기반 수출도 유망

K-소비재, 콘텐츠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 스마트·친환경 건설 인프라 진출
 - IoT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친환경 자재 공급 및 리노베이션 시장 공략
 - 현지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공공 프로젝트 입찰 및 레퍼런스 확보

스마트 모빌리티

-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차 전환 대응
 - 전기차 배터리·충전 인프라·부품 공급을 통한 진출
 - 자율주행 기술·플랫폼을 현지 교통 실증사업에 적용, “EV+AV+MaaS” 통합 모델 추진

의료·바이오 R&D

- 의료·바이오 R&D 및 디지털 헬스 협력
 - 현지 병원·연구기관과 공동 연구·임상시험 추진
 - AI 기반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고령층 대상 서비스와 연계해 시장 진입

K-소비재·콘텐츠

- 디지털 무역 허브 활용 K-소비재·콘텐츠 확산
 - 스마트 물류+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로 K-푸드·뷰티·헬스케어 확산
 - OTT·게임 등 K-콘텐츠와 연계 소비재 판매, FTA·디지털 협정 활용

전략 ① 스마트·친환경 건설 인프라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정책과 건설시장 변화
 - *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전략의 일환으로 녹색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
 - * 신규주택 및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수요도 확대 중
 - *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건설 부문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한국형 스마트 건설기술과 친환경 솔루션 경쟁력
 - * 건물관리 및 IoT 기반 안전시스템 등 한국의 선진 스마트 건설기술 제공 가능
 - * 모듈러 건축, 고효율 단열재 등 친환경 건축자재 공급 역량 보유
 - * 공공 인프라 및 민간 건물관리 시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 수처리·재활용, 에너지 효율화 기술 경쟁력 보유

□ 현지 동향

-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프로젝트
 - 싱가포르 정부는 2014년 리셴룽 총리가 공식 발표한 'Smart Nation' 전략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함. 이후 Smart Nation Programme Office 설립(2014년),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Group(SNDGG) 출범(2017년) 등으로 정책적 기반을 강화 하였으며, 2024년에는 'Smart Nation 2.0'을 통해 신뢰(Trust), 성장(Growth), 공동체(Community)를 핵심 목표로 한 2단계 비전을 제시
 - 건설 부문에서는 건축환경의 디지털화, 통합센서 및 IoT 활용, 스마트 빌딩 관리 시스템, 데이터 기반 도시 솔루션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
 - 이러한 정책은 공공·민간 개발 모두에서 첨단기술과 지속가능성의 융합을 장려하고 있으며, 건축·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스마트·그린 건설로 전환 시키는 핵심동력으로 작용
- 녹색건축(Green Building)
 - 건물 부문은 싱가포르 전체 탄소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영역임.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녹색건축 보급 확대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함
 - 녹색건축은 에너지·수자원 절감, 폐기물 감소, 건물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뿐 아니라, 웰빙·생산성 제고와 같은 사회적 가치도 창출
 - 기후변화 대응 전략 차원에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ESG 경영 확산과 함께 건축주·임차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자리잡고 있음
- 싱가포르 그린 빌딩 마스터플랜(SGBMP)
 - 정부는 건축환경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Singapore Green Building Masterplan(SGBMP)'을

수립하였으며, 2030년까지 '80-80-80 목표' 달성을 추진 중임

- * ① 전체 건축물의 80%를 녹색건축으로 전환
- * ② 신규 개발의 80%를 초저에너지(Super Low Energy, SLE) 건축으로 전환
- * ③ 최고 수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80% 개선

- 이는 기존 그린마크 제도와 연계되어, 법적·제도적 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녹색건축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 그린마크(Green Mark) 인증제(2005년 도입)
 - 싱가포르 건축청(BCA)이 운영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수자원 관리·환경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
 -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건물 리노베이션에도 적용되며, 건물 소유자·개발자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함께 녹색건축 확산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

싱가포르 그린 건설 산업 대표기업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Getronics, Boustead Pro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사는 Boustead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혁신하기 위해 협력, 운영 자동화, 스마트 건물 인프라 관리, 근무시간 외 필수 서비스 유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을 추진함 • Boustead Projects는 민간 부문에서 그린마크 플래티넘(Platinum) 등급 산업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한 선도기업으로, 192년 역사의 Boustead Singapore 그룹 소속임. 동 그룹은 총 370만 제곱피트(GFA 기준)의 임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4개국에서 16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완료함 • Getronics는 모듈형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여 자산 포트폴리오 및 국가 간 확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물 내 주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게 함

자료: Singapore Green Building Council

□ 유망 품목

- 스마트 건설기술 및 솔루션
 - 모듈러 건축 및 PPVC : 사전제작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며, 공사 기간 단축, 인력 의존도 감소, 현장 폐기물 저감 효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
 - 디지털 기술 도입 확대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AI 기반 예측 분석기술 활용을 통해 자재·비용 낭비 방지, 설계오류 감소,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 가능
 - IoT·자동화 기술 : IoT 센서를 활용한 온도·습도·에너지 사용량·구조 안정성 실시간 모니터링과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통합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 또한, 로봇·드론 기반 자동화 기술이 현장 조사, 공정 모니터링, 안전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 안전관리 혁신 : 웨어러블 센서와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솔루션이 확산되며, 노동자 안전보장 및 규제 준수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그린빌딩 제품군

- 에너지 효율 건축자재 : 고성능 단열재, 고단열 창호, 복사열 차단 코팅 등 건물 외피 성능을 개선하는 제품이 주류를 형성. 또한 저탄소 시멘트와 재활용 골재 활용 자재가 확대되며, 건물 전반의 에너지 효율 강화와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
- 지속가능 건축 시스템 : 태양광 패널 및 건축 외피와 일체화된 솔라 기술, 고효율 HVAC 시스템(열 회수 환기, 스마트 온도 제어, 냉난방 부하 자동 최적화), 센서 기반 자동화 조명, LED·디밍(Dimming) 제어 등 에너지 절약형 스마트 시스템 수요가 높음
- 물 절약·재활용 솔루션 : 빗물 수집 시스템, 중수 및 빗물 재활용 플랜트, 물 사용량 모니터링과 누수 감지 센서 등이 주요 품목으로 부각. 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물 운영에 기여
- 실내환경 품질 개선 제품 :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 정화 시스템, CO₂·미세먼지(PM2.5) 모니터링 센서, 저휘발성 유해물질 마감재 및 가구 자재 등이 대표적. 아울러 자연채광 설계, 차양·루버 시스템, 습도 조절 장치, 방음·소음 차단 자재 등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업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 진출전략

- 공급 전략

- 한국 기업은 스마트 건설기술과 친환경 자재를 현지의 정책 기조와 규제, Green Mark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급할 필요가 있음
- 모듈러 건축과 PPVC 방식은 공사 기간 단축, 인력 절감, 현장 폐기물 저감 효과로 정부가 장려하는 분야이며 진출 경쟁력이 높음
- 고효율 단열재, 저탄소 시멘트, 재활용 골재 등 에너지 효율 저탄소 건축자재는 싱가포르의 그린 빌딩 마스터플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성이 확대되고 있음
- 스마트 빌딩 관리, IoT 기반 안전관리,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스마트 그리드·수처리·재활용 솔루션은 공공 인프라와 민간 건물관리 시장 모두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협력 전략

- 싱가포르 건설시장은 공공 프로젝트 비중이 높고 현지 대형 개발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건설사와 IT·기술기업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 빌딩관리,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건축 자재 등 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정부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나 테스트베드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면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고 진출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음

- 레퍼런스 확보 전략
 - 신규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형 스마트·그린 빌딩 모델을 전시회나 Green Building Week 등 전문 행사에서 선보이고, 중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함.
 - 시범사업을 통해 Green Mark 인증, 에너지 절감 효과, 탄소배출 저감 데이터 등을 확보하면 현지 발주처와 투자자에게 강력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 있음
 -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례 연구나 백서 발간, 업계 저널 기고, 현지 언론 홍보를 진행하면 시장 내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음

전략 ② 스마트 모빌리티·전기차 전환 대응



전략 수립 배경

- EV 전환 정책과 자율주행 실증 확산
 - * 싱가포르는 2030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중단, 2040년 전량 청정차 전환을 추진 중
 - * 2030년까지 약 6만기 충전기 설치 계획, EV 보급 인센티브(EEAI, VES) 제공
 - * 풍골·텅가·원노스 등에서 자율주행 셔틀 시범사업 진행, 민간기업도 참여 확대
 - * 5G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이 가속화되며 교통체계 혁신 수요 증가
- 한국 기업의 EV·자율주행 기술 경쟁력과 융합 역량
 - * 한국은 EV 배터리, 전력전자, 고속충전 기술 등 글로벌 경쟁력 보유
 - * 자율주행 센서, V2X 통신, 플랫폼 기술이 싱가포르 시범사업과 연계 가능
 - * ICT-모빌리티 융합 경험을 활용해 EV-충전-자율주행-MaaS 통합 모델 제시 가능

□ 현지 동향

- EV 전환 정책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을 전면 중단하고, 2040년까지 모든 차량을 청정에너지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공공주차장 및 민간 부지를 포함해 약 6만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
 - EV 초기보급 인센티브(EEAI), 차량배출가스제도(VES)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차량구매 비용을 낮추고 민간·상업용 EV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혁신
 - 풍골(Punggol), 텅가(Tengah), 원노스(one-north) 등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셔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산업·복합 용지 환경에서 운행 가능성을 검증 중임
 - Ryde, 컴포트델그로(ComfortDelGro) 등 민간 기업들이 정부와 협력해 자율주행 실증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음
 - 정부는 5G 및 초저지연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실증을 지원하며, 미래 교통체계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싱가포르 스마트 모빌리티 대표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Ryde(모빌리티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TA에 풍골 지역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제안서 제출(2025년 9월) 자율주행 셔틀을 주민-MRT역·교통허브 연결용으로 운행 예정(2025년 4분기) 초기 12개월간 안전요원이 동승, 이후 원격 모니터링 및 완전 무인 운행으로 단계적 전환 계획 Ryde 앱을 통한 예약·결제 기능 제공 예정 셔틀·로보택시 등 다양한 무인교통수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백엔드 시스템 개발 중

자료: The Straits Times

□ 유망 품목

- EV 관련 기술
 - 대용량·고속충전 배터리 : 급속 충전속도 향상, 에너지 밀도 확대, 배터리 수명 연장 등 기술 고도화가 요구됨. 특히 상업용 차량(버스·물류 트럭)의 전기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고출력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수요가 높음
 - 충전 인프라 및 전력망 연계 솔루션 : 정부의 2030년까지 6만기 충전기 설치 계획과 맞물려, 스마트 충전관리, 부하 분산(Load balancing), 재생에너지 연계형 충전 솔루션 등이 핵심 분야로 부상함
 - 전력전자·구동 모터·열관리 시스템 : EV 효율성과 주행거리 확장을 위해 고효율 전력변환장치, 경량·고성능 모터, 배터리 열폭주를 방지하는 열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자율주행·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 자율주행차량 플랫폼 : 풍골, 텅가, 원노스 등 시범지구에서 운행되는 셔틀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주행 환경에 적합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개발이 유망
 - 센서 및 인지 시스템 : LiDAR, 카메라, 레이더 등 복합센서와 이를 통합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수요가 확대됨. 안전성, 인지 정밀도, 악천후 대응력 등이 핵심 경쟁 포인트임
 - 5G·초저지연 통신 모듈 : 자율주행차와 교통신호 간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스마트 교통시스템 및 차량운영 효율화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음
 - 운영·관제 플랫폼 : 차량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운영·안전관리 플랫폼이 중요하며, 상용화 단계에서 차별화 요인이 됨
- MaaS(Mobility-as-a-Service)
 - 구독형 교통 패키지 : EV·AV 기반 이동 서비스를 구독형태로 제공하는 모델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됨
 - 통합 디지털 플랫폼 : 버스, MRT, 택시, 공유 모빌리티 등 공공 및 민간 교통수단을 연계해 예약·결제·운행을 통합 관리하는 MaaS 플랫폼이 발전 중임

- 데이터 기반 서비스 최적화 : 이용자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경로 제공, 다중 모드 환승 최적화, 실시간 교통량 예측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영역으로 떠오름

□ 진출전략

- EV 공급 전략
 -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EV 배터리, 충전 인프라, 전력전자·구동 모터 등 핵심부품을 싱가포르의 주요 전력사(SP Group) 및 교통기관(LTA, SMRT 등)과 협력해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를 통해 대규모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나 공공 교통수단 전동화 계획에 참여할 수 있음
 - 택시, 물류, 셔틀버스 등 상업용 차량 운영사에 대해 차량과 충전 인프라를 결합한 터키 패키지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초기도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자율주행·스마트 모빌리티 참여 전략
 -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한국산 자율주행 셔틀, LiDAR/센서, V2X 통신기술 등을 적용해 참여함으로써 기술력을 입증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풍골, 텅가, 원노스와 같은 지정 시범지구에서의 실증사업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Ryde, Grab 등 현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자율주행차 운행을 기존 호출 서비스 앱과 연계하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초기 이용자 확보에도 유리함
- 통합 패키지 솔루션 전략
 - 단순한 차량·충전기 공급을 넘어 “충전 인프라 + 모빌리티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차별화된 진출 모델을 제시
 - 풍골, 텅가 등 스마트 타운 pilot 지구에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시범 구축함으로써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모델을 현지에서 선보이고, 향후 구독 기반 서비스나 MaaS 형태로 확장 가능한 서비스형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전략 ③ 의료·바이오 R&D 및 디지털 헬스 협력



전략 수립 배경

- 의료 허브 성장과 디지털 헬스 수요 확대
 - * 싱가포르는 글로벌 제약사·바이오 기업의 R&D 거점을 유치하며 아시아 대표 의료 허브로 성장 중
 -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로 원격진료, 헬스테크, 디지털 헬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 정부는 Healthier SG 등 정책을 통해 예방의료와 디지털 헬스 도입을 적극 지원
- 한국 기업의 의료기기·바이오·디지털 헬스 경쟁력
 - * 한국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후보, 디지털 헬스 솔루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
 - * AI 기반 진단·모니터링 기술,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현지 병원·연구 인프라와 연계 가능
 - * 공동 연구소 설립과 IP 확보를 통해 장기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현지 동향

-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 싱가포르는 바이오플리스(Biopolis), 투아스(Tuas) 등지에 글로벌 제약사와 연구기관이 집적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음
 - 해당 클러스터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 방식으로 설계되어, 기업이 대규모 초기투자 없이도 신속하게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연구소, 임상시험 시설, 제조공장, 규제 지원 서비스 등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자급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R&D 및 의약품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동일 클러스터 내 타 바이오·제약 기업들과의 협력이 용이해, 글로벌 수준의 오픈이노베이션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 고령 인구 확대와 생활습관병 증가로 인해 원격진료,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 중임
 - 특히 성공적 노화(Action Plan for Successful Ageing), Healthier SG 전략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을 통해 예방의료 강화,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 헬스 도구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고령화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의료 혁신 지원제도

- 싱가포르는 헬스케어 혁신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Accelerate 프로그램은 헬스테크 솔루션의 상용화를 지원하며, 초기 단계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금과 자원을 제공함
- i2D(Innovation to Deployment) 프로그램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헬스케어 혁신 개발을 지원하며, 최대 30만 싱가포르 달러 한도의 자금이 프로젝트팀이 제안한 기술 개발 비용을 환급 방식으로 제공됨.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임상 적용과 사업화 전환을 촉진함

□ 유망 품목

-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 싱가포르는 아시아 임상시험 허브로 자리잡으면서 첨단 의료기기와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정밀진단 및 맞춤형 치료와 같은 첨단기술 기반 제품의 시장성이 높음
- 고급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 : 영상진단, 분자진단, 정밀검사 장비 등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병원·클리닉에서도 적극 도입 중임
-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 및 맞춤형 치료제 : 암, 희귀질환, 만성질환 대응을 위한 혁신적 바이오 신약과 환자 특성 기반의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임상시험 및 R&D 협력 솔루션 : 다국적 제약사와 연구기관이 집적된 클러스터 환경을 활용해 임상 시험 대행,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 협력형 솔루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디지털 헬스 분야

-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정부 주도의 스마트 헬스케어 정책확산에 따라 디지털 헬스기술의 성장성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 원격진료 플랫폼 및 만성질환 관리 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용 앱과 플랫폼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음
- AI 기반 진단·모니터링 솔루션 : 영상·음성·생체데이터를 활용한 AI 진단, 웨어러블 기기 기반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등 디지털 헬스 솔루션의 상용화가 가속화됨
- 고령층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 고령 인구 확대에 대응하여 재활치료 지원, 낙상 감지·예방 센서, 인지 기능 관리 서비스 등 노인 특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진출전략

- 임상·의료기기 협력 전략
 - 한국 기업이 보유한 첨단 의료기기와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을 싱가포르 주요 병원(NUH, SGH 등) 및 연구기관(A*STAR, Duke-NUS 등)과 연계하여 공동 임상시험 및 검증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신제품의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싱가포르가 보유한 임상시험 허브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
 - 고급 의료기기(정밀 진단기기, 분자진단 장비 등)를 싱가포르 의료 허브에 공급함으로써, 현지 의료 네트워크와의 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R&D 공동개발 전략
 - 싱가포르 정부가 제공하는 R&D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한-싱 공동 바이오 연구소 또는 합작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효함
 -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적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공동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특히 싱가포르가 보유한 규제·임상시험 지원 서비스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아시아 시장 전반을 겨냥한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디지털 헬스 전략
 - AI 기반 진단·모니터링 플랫폼을 고령층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낙상 감지, 만성질환 관리 등)와 결합하여 시장에 진입하면, 현지의 고령화·만성질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원격진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싱가포르의 공공의료체계와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진출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의료, 맞춤형 치료, 지역사회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까지 확장함으로써,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전략 ④

디지털 무역 허브를 활용한 K-소비재·콘텐츠 확산



전략 수립 배경

- 디지털 무역 허브 성장과 소비재·콘텐츠 확산 기회
 - * 싱가포르는 아세안 대표 전자상거래 허브이자 글로벌 물류·금융 중심지로, 역내 교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함
 - * 다민족 사회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비 패턴을 시험할 수 있어, 아세안·인도·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됨
 - *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글로벌 물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스마트 물류를 활용한 소비재·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 기업의 소비재·콘텐츠 경쟁력과 진출 포인트
 - * K-푸드, K-뷰티, 헬스케어 제품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비재를 스마트 물류 역량과 결합할 수 있음
 - * OTT, 게임, 머천다이즈 등 디지털 콘텐츠 및 크로스보더 유통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함
 - * 통합 디지털 마케팅과 물류 경험을 싱가포르의 디지털 무역 허브 기능과 연계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함

□ 현지 동향

- 온라인 소비 확대
 - The Straits Times 현지 보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전체 소매 판매 중 13.6%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발생했으며, 이는 전월(12.3%) 대비 증가한 수치임
 -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성장한 이후, 지속적인 디지털화 추세와 MZ세대 중심의 모바일 쇼핑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임
 - 특히 뷰티·패션·K-푸드·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 K-소비재 분야는 한류 확산과 맞물려 온라인 채널을 통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무역·제도 환경
 - 싱가포르는 CPTPP, RCEP, DEPA, KSDPA 등 다수의 FTA 및 디지털경제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에 매우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전자결제, 디지털 인증, 소비자 보호 등 전자상거래의 핵심 제도들이 정비되어 있어 한국 기업이 진출 시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동시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디지털 허브로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한국 소비재·콘텐츠의 역내 확산(ASEAN 시장 확대)에도 효과적임

□ 유망 품목

- 소비재

- K-푸드·K-뷰티·헬스케어 제품 : 전자상거래 플랫폼(Shopee, Lazada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 확대가 가능하며, 싱가포르의 디지털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신선식품(콜드체인), 화장품(규제 인증) 등 다양한 품목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됨
- K-콘텐츠 기반 연계 소비재 : 드라마·K-pop 등 한류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식품, 패션, 머천다이즈 등 연계 제품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 특히 팬덤 기반 굿즈와 테마형 식음료(F&B) 제품이 유망함

-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

- OTT·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 싱가포르 내 글로벌 OTT 플랫폼(Netflix, Disney+, Viu 등) 및 현지 통신사/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K-콘텐츠 유통 확대가 유망함
- 콘텐츠-소비재 융합 마케팅 : 드라마/아이돌 IP를 활용한 협업 제품출시, 게임·웹툰·패션 브랜드 간 크로스마케팅 사례처럼, 디지털 콘텐츠와 소비재를 결합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 큼

- 스마트 물류 솔루션

- 콜드체인 물류 : 신선식품 및 헬스케어 제품의 역내 전자상거래 확대와 함께, 저온유통 체계 구축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친환경 패키징 : ESG 흐름에 맞춰 재활용 가능·생분해성 포장재, 경량화 포장 솔루션이 중요하게 부각됨
- 라스트마일 배송 기술 : 전자상거래 급성장에 따라 드론 배송,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마트 락커 등 라스트마일 혁신 솔루션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

□ 진출전략

- 공급 및 물류 통합 전략

- 한국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물류 및 콜드체인 솔루션을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허브와 연계하여 적용함으로써, K-푸드·헬스케어 제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싱가포르 내수시장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세안 전역으로 유통망을 확장할 수 있으며, 친환경 패키징 및 라스트마일 배송 솔루션을 결합하여 ESG 수요에도 대응 가능함

- 콘텐츠·커머스 융합 전략
 - OTT 게임 등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를 싱가포르 현지 플랫폼 및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해 배급하고, 해당 콘텐츠와 연계한 소비재(뷰티, 패션, F&B, 머천다이즈)를 크로스마케팅 방식으로 유통해야 함
 - 한류 팬덤 기반의 굿즈, 테마형 F&B, 협업 브랜드상품을 현지화된 마케팅 전략과 결합함으로써 콘텐츠-커머스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비자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음
- B2B/B2C 병행 전략
 - 싱가포르를 디지털 무역 테스트베드로 삼아, B2C 직접판매(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와 B2B 협력(유통사·플랫폼사 파트너십)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 이를 통해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 역내 진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현지 유통망과 연계한 단계적 확산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음
- 차별화 및 시장 접근 전략
 -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 스마트 물류-콘텐츠-소비재-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합한 복합 진출전략을 추진해야 함
 - 싱가포르가 체결한 CPTPP, RCEP 등 자유무역협정과 DEPA, KSDPA 등 디지털경제협정을 활용하면 관세 혜택,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전자결제 표준화 등 제도적 이점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음



의약품, 의료기기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바이오플리스 등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임상시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 정밀진단 장비, 신약 후보 물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및 글로벌 바이오기업 다수가 진출해 다국적 기업 주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됨. 최근에는 고품질·혁신 기술이 반영된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저한 규제 검토 및 인증 절차 이행이 필수이며, 현지 병원·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임상·R&D 참여가 효과적임. 임상 데이터 확보를 통해 시장 신뢰도 제고 필요 |

EV 충전 인프라 및 솔루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약 6만기의 EV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공주차장·민간 부지 전반에 걸쳐 충전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속충전기, 스마트 충전 관리 시스템, 전력망 연계 솔루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에서는 SP Group 등 전력사 중심으로 충전망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테슬라·BYD 등 글로벌 브랜드도 자사 충전소 확장에 나서고 있음. 하지만 스마트 부하관리, 결제 플랫폼, 재생에너지 연계 충전 솔루션 분야에서는 아직 틈새 기회가 존재함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업은 급속충전기·전력변환장치·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에서 강점을 살려 진출할 수 있음. 특히 충전 인프라를 단순 하드웨어 공급이 아니라 스마트 결제·예약·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연계해 제공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현지 전력사·부동산 개발사와 협력해 도심형 충전 허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임 |

건설 자재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주택 개발, MRT 확장, 창이공항 T5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철강·시멘트·목재·알루미늄 등 자재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말레이시아 등 인근국 의존도가 높아 공급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임. 최근에는 품질·친환경 인증 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지 건설사 및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함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자재의 내구성·친환경성을 부각하고, BCA 인증 등 규제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함. 현지 건설사·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납품망을 확보하고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반도체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R&D 허브로 성장하며, 정부가 세제 혜택과 인프라를 지원해 대규모 투자가 활발함. 이에 따라 장비·부품 등 연관 품목 수요도 증가 추세임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대만·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생산시설과 협력망을 구축해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됨. 다만 첨단공정, 특화 장비·소재 분야에서는 협력 기회가 존재함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업은 반도체 장비·소재·테스트·패키징 기술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현지 및 글로벌 기업과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함. 정부 인센티브와 공동 R&D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진출 확대 가능함 |

펫케어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카드(Fur Kid)’ 문화 확산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프리미엄·기능성 사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 HDB(공공주택)에서 고양이 사육이 합법화되면서 사료·모래·의약·헬스케어 제품 등 반려묘 관련 시장이 새롭게 성장 한국산 펫푸드 수출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진출 가능성성이 높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며,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함 전문 펫숍이 주요 유통 채널이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구독형 서비스 확산으로 판매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미엄·반려묘 특화 제품 및 냉장·생식 라인과 같은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 싱가포르 동물보건청(AVS)의 규제·라벨링 요건 준수가 필수이며, 대마 성분 금지 등 민감한 규제 요소에 대비 필요 오프라인 전문점과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 전략으로 운영하고, 친환경·투명성(성분 공개, ESG 포장재)을 강조해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음 |

화장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팬데믹 이후 뷰티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며 립·기초·스킨케어 수요가 확대전체 수입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한국산 화장품은 오히려 수입·점유율이 늘며 시장 내 입지 강화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지 및 글로벌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며, 다톤 피부 대응, 합리적 가격, 클린 뷰티가 차별화 요소로 부상Z세대 중심으로 친환경·성분 투명성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는 중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تون 맞춤 포뮬러 및 스킨케어 현지화를 통해 제품 적합성을 강화오프라인 리테일(세포라 등)과 온라인몰 병행으로 채널 다각화쿠션·틴트 등 색조 강점 + 스킨케어 + 친환경 포장을 결합해 신뢰도 제고 및 아세안 확산 추진 |

건강식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싱가포르는 Healthier SG 정책과 Nutri-Grade 제도 도입을 통해 저당·저칼로리 제품 소비를 장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단백질 쉐이크, 대체식, 기능성 가공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바쁜 도시 생활 환경 속에서 간편·기능성 제품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며, 체중 관리·면역력 강화·장 건강 등 프리미엄 건강 목적의 제품군이 빠르게 성장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글로벌 브랜드와 현지 기업이 저당·고단백·기능성 제품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유통은 전통 리테일을 넘어 온라인몰, 피트니스 센터, 헬스 전문점 등으로 다각화되며, SNS 기반 건강·다이어트 커뮤니티와 연계된 마케팅이 활발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 기업은 Nutri-Grade 기준 충족과 함께 저당·고단백·클린 라벨을 강조해 제도 대응력을 확보해야 함현지 식습관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면역·장 건강·피부 건강 등 기능성 포인트를 세분화해 차별화 전략을 강화해야 함온라인몰·헬스클럽과 제휴한 시범 유통, 체험형 프로모션을 통해 초기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K-헬스 이미지와 연계해 아세안 시장 확산을 추진할 수 있음 |

공기처리 제품

- 선정사유**
- 싱가포르는 열대 기후와 엘니뇨, 헤이즈(연무) 발생 등으로 냉방기기와 공기정화기 수요가 높음
 - 팬데믹 이후 실내 공기질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가정·사무실·병원 등 전방위 수요 확대.
 - 2024년 공기정화기 수입액 약 4억 3,000만 달러(+7.9%), 냉방기기 수입액 2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
- 경쟁동향**
- EuroAce, Mistral, KdK, Sona, Mitsubishi 등 현지·글로벌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
 - 스마트 홈 트렌드에 따라 공기청정+가습+냉방 등 복합 기능과 미니멀 디자인 제품이 각광.
 - 다수 브랜드 진출로 경쟁이 치열하며, Safety Mark 인증 취득 등 규제 준수가 필수
- 진출방안**
- 한국 기업은 고효율·다기능·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부각하고, 현지 소비자의 웰빙·편의 추구 트렌드에 맞춘 제품 라인업 필요
 - 대형 전자제품 유통망과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해 채널 다각화 추진
 - 품질 우수성과 디자인 경쟁력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레퍼런스 확보 후 아세안 지역 확산 기반 마련

소형·다기능 가전용품

- 선정사유**
- 싱가포르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소형 가구가 늘어나면서 공간 절약형·다기능 주방가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프리미엄 가전 소비가 늘어나며, 에어프라이어·멀티쿠커·소형 식기세척기 등 편의성을 중시한 제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경쟁동향**
- 글로벌 대형 가전 브랜드가 시장을 선도하나, 현지·역내 브랜드와 가격·AS 경쟁이 치열
 - 디자인, 친환경·에너지 절감 기능 등 차별화 요소가 주요 경쟁 포인트
- 진출방안**
- 한국 기업은 세련된 디자인·우수한 품질을 강조하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해야 함
 - 소형주택 환경에 맞춘 컴팩트·다기능 라인업과 에너지 효율 인증 확보를 통해 시장 적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대형 리테일(Harvey Norman, Courts 등)과 온라인몰을 병행 활용해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K-라이프스타일 마케팅과 연계해 아세안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음

스포츠·피트니스 용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정부의 Healthier SG 정책과 웰빙 트렌드 확산으로 홈트레이닝, 요가·필라테스 등 개인 맞춤형 피트니스 용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가정용 운동기구, 피트니스 보조 영양제 등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생활습관 변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브랜드와 현지 피트니스 전문업체가 다양한 가격대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 소비자들은 가격·품질뿐 아니라 디지털 기능(스마트 트래킹, IoT 연동)이 결합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업은 합리적 가격과 품질을 겸비한 홈트·요가 용품과 함께 프리미엄 보조제품 라인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음• 현지 피트니스 센터, 요가 스튜디오, 온라인몰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채널을 확보하고, 체험 마케팅 (시범 클래스, 이벤트)을 적극 활용해야 함• 웰빙·헬스 트렌드와 맞춰 K-헬스·K-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미지를 접목하면 시장 내 차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에듀테크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코로나19 이후 싱가포르는 에듀테크 마스터플랜 2030을 통해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 맞춤형 학습, 교사 생산성 향상, 안전한 데이터 관리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함께 학생 개별 성취도 기반의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지 및 글로벌 기업이 이미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나, 교육부(MOE)의 정책적 지원과 디지털 학습 확산 흐름 속에서 신규 협력 기회가 존재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도 활발하지만, 품질 검증·레퍼런스 확보 측면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 기업은 AI 기반 맞춤형 학습 솔루션, 교사 지원 툴을 제안하고, 현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학습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교육부·학교·훈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싱가포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아세안 시장 확산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효과적 |

IT솔루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 전략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책을 통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 등 IT 솔루션 수요가 산업 전반(의료·금융·물류·교육)으로 확대되고 있음특히 금융권의 디지털뱅킹, 물류 분야의 스마트 물류 관리, 공공부문의 AI 행정서비스 등 산업 특화형 IT 솔루션 수요가 뚜렷함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AWS, Microsoft, Google 등 글로벌 대형 IT 기업이 클라우드·AI 솔루션을 장악하고 있으며, 지역 스타트업이 틈새시장을 공략 중임경쟁은 치열하지만, 정부의 디지털화 촉진 정책과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 수요확대 덕분에 신규 진입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AI 규제 준수를 전제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데이터 보안, 산업 특화형 IT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음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정부 주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B2G·B2B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유효함 |

친환경 프로젝트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건축,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 ESG 경영 확산, 녹색금융 지원 확대에 따라 지속가능 인프라·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현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스마트 빌딩, 친환경 컨설팅 분야에서 활발히 진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다만, 고효율 기술과 국제적 레퍼런스를 보유한 기업에는 공공·민간 협력 기회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기업은 에너지효율 기술,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 그린 솔루션을 앞세워 싱가포르의 녹색 프로젝트 참여를 모색할 수 있음• 정부·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레퍼런스 확보 및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함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싱가포르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사절단	소비재 무역사절단	5월/싱가포르
	종합 품목 무역사절단	11월/싱가포르
유통/소비재	현지 e커머스 협력 입점 및 판촉 지원 사업	연중/온라인
	지역 우수 식품 판촉전	상반기/싱가포르
전시회	싱가포르 해양산업 전시회	3월/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보통신전시회	5월/싱가포르
	싱가포르 Medical Fair	9월/싱가포르
	싱가포르 SWITCH	10월/싱가포르
취업	노무 및 인사관리 세미나	상반기/싱가포르
	취업박람회 연계 첨단산업 분야 해외인재유치 제도 홍보	상반기/싱가포르
	졸업 멘토와 찾아가는 취업 멘토링	하반기/싱가포르
	인재유치 채용 상담회	하반기/싱가포르
투자	투자유치 사절단	연중/싱가포르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해당없음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	2~3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싱가포르 항공 에어쇼	2월	
싱가포르 건축기자재 전시회	3월	
싱가포르 항공산업 전시회	3월	
싱가포르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전시회	3월	
싱가포르 식품 및 호텔 전시회	4월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5월	
싱가포르 산업용 부동산 투자 전시회	6월	
싱가포르 국제 워터 위크	6월	
싱가포르 의료기기 전시회	9월	
싱가포르 조선 해양 전시회	11월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홍주	과장	싱가포르무역관	6426-7202	kimhj@kotra.or.kr
2	Tiffany	대리	싱가포르무역관	6426-7213	tiffanylim@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싱가포르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42-3 (95320)